【1】 第995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가)급認可<우편번호 100—715>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64年1月1日 登錄番號다-10) 西紀1988年(檀紀4321年)5月17日 (火曜日)

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李[illegible]
印刷人 李[illegible]
主幹 [illegible]
編輯局長 [illegible]
編輯長 [illegible]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350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모든 중생은 즐거움을 바라나니 중생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뒷세상에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法句經>

"東岳이여, 統一로 물결쳐라"

東國祝典 「목멱대동제」 내일 개막

「5·18 계승주간」도 설정

개교82주년 기념 동국축전이 「목멱대동제」란 이름아래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교 내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관련기사 6面> 「동악이여, 한라의 유채꽃이여! 찢겨진 산하넘어 백두의 천지까지 통일로 물결쳐라!」란 기치의 이번 축제는 제2회 불교도주간(16~21일)과 광주민중항쟁8주기 계승실천주간이 끼어있다.

주요행사로는 백기완선생 통일강연회(18일 도서관앞), 모의통일연석회담(19일〃), 모의대통령선거(20·21일〃)가, 주요공연으로는 광주민중항쟁 상황마당극(18일 불상앞), 노래극(20일 중강당)등이, 전시행사로는 북한여성사진전, 성고문사진전 판화전시회등이 열린다.

「광주민중항쟁8주기 계승·실천투쟁 선포식」이 지난 16일 오후2시 학생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학 주최로 불상앞에서 열렸다.

기획부장 김태현(철학4)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 趙城晩열사 할복투신 경과보고, 유서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총학생회장 최재성(불교4)군은 『광주가 이토록 절절하게 청년학도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것은 광주민중항쟁이 혁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주적·민주적 통일의 그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하잔』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4시 반경, 광주오적 화형식을 가진뒤 스크럼을 짜고 교내일원을 돈뒤 종문에 진출, 「광주학살 진상규명 국조권 발동하라」「광주시민 학살원흉전노일당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이를저지하는 전경의 최루탄난사에 맞서 돌과 화염병5백여개를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불교도연합회 주최 제2회 불교도 주간행사가 「불자여! 이 척박한 땅, 예토에 해방의 불길로 타올라라」란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불타의 근본사상으로 회귀하는 실천불교의 새모습을 찾는데 목적을 둔 이번행사는 지난 16일 오후12시45분 불상앞에서 「불교도주간 선포식 및 민주영령천도제」를 가진데 이어 오후 4시에는 법사단주최 「해방전후의 불교와 만해」란 연제로 曉林스님 초청 강연회가 교수세미나실에서, 오후7시30분에는 보사연주최 촌극 「불교악법 철폐하여 불교자주 쟁취하자」는 공연과 불교학생회 주최 점등식및 탑돌이가 불상앞에서 잇달아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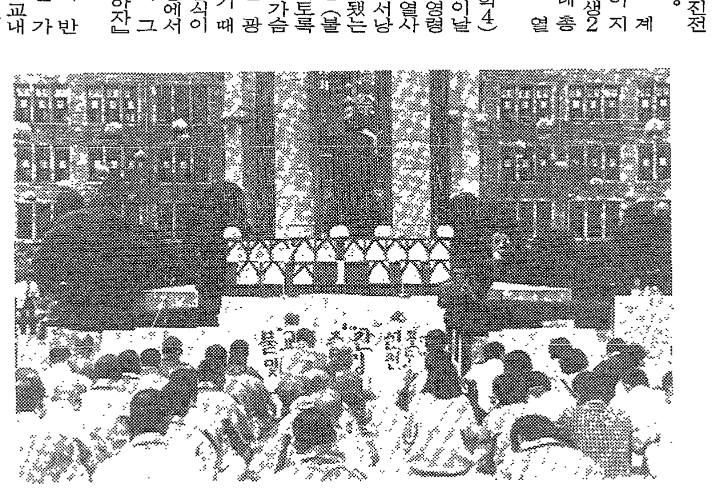
또 17일에는 총학생회주최로 망월동참배를 가지며 19일에는 오후2시 교수세미나실에서 인도철학과학생회 주최로 「요가, 그 해방의 길」을 주제로한 鄭泰赫(인철과) 대우교수 강연회가, 오후4시에는 정각원에서 불교학생회주최 수계法會가 각각 있게 된다.

또한 20일에는 오후4시 불교대학생회주최 知詵스님 초청강연회가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불교도역할」을 주제로 중강당에서 열리며 21일에는 오후9시30분 총학생회 불교대공동주최의 제등행렬이 학교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코스에서 있게된다.

이날 「불교도 주간 선포식및 민주영령 천도제」에서는 전통국인과 불자가 민주주의의 선봉이될것을 다짐하며 민주열사 김세진, 이석규, 이한열, 박종철군등을 추모하는 의식이 학륜스님(철학과4)의 집전으로 행해졌다.

한편 경주캠퍼스 불교도연합회는 불기2천5백32주년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지난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봉축행사를 거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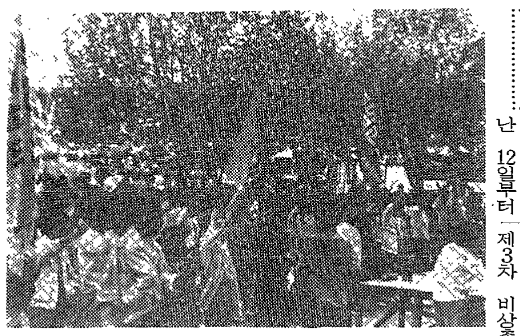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교내일원1백여개 연등설치및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22일에는 대형白象을 앞세우고 황성공원을 출발, 성건시장→대구로타리→팔우정로타리를 돌아와역전에 이르는 5㎞구간에걸쳐 제등행렬을 펼치게된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오전10시 閔丙天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을 정각원에서 갖는다.



◇개교82주년 東國祝典인 「목멱대동제」가 「동악이여, 한라의 유채꽃이여! 찢겨진 산하넘어 백두의 천지까지 통일로 물결쳐라!」란 기치아래 오는 18~21일까지 열린다.

학내민주화 농성 잇달아

장학금 공개·무능교수퇴진등 요구



◇망월동 참배 광주민중항쟁 8주기를맞아 本校生 4백여명이 지난17일 9대의 관광버스에 분승, 광주망월동 참배를위해 출발했다. <사진 광주참배 출정식>

서울캠퍼스

법과대 학생50여명은 지난 12일부터 요구한 무능교수퇴진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16일 제3차 비상총회를 열어 무능교수퇴진에 관한 행동결의를 논의, 투표절차를 밟기로해 출석자 64명중3분의2이상의 지지를 얻어 무능교수퇴임촉구를 결의한 후 오후 5시부터 법과대 학장실을 점거하는등 다시농성에 돌입했다.

지난11일·12일 1, 2차비상총회를 거쳐 종합세미나실등을 점거, 철야농성까지 벌였던 법과대학생들은 졸업점 1백60점제와 열람실배치건은 사실상 해결됐으나 가장 문제시 되어왔던 무능교수건이 해결되지 않자 다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경상대학생회는 「장학금내역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벌여오던 농성을 지난 11일 잠정중단하고, 총학및 법과대의 연대로 「어용·무능교수퇴진」투쟁을 계속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4일부터 시작된 「장학금공개투쟁」에서 본관교수세미나실을 점거, 9일과 11일 각각 총장면담과 공청회를 가졌으나 학교측이 『전임학생처장에 대한 예우때문에 공개할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의 진전이 없자 이를 전동악차원에서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농과대 학생 1백여명은 「농대강의실의 혜화관집중배치」「실험실습과 실험기자재의 확충」「장학금내역의 공개」등을 요구하며 지난12일 오후3시경부터 본관 교수세미나실과 총장비서실을 차례로 점거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당국이 약속했던 「전산원이전」과 「강의실의 혜화관 집중배치」등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책이 없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중 학생들은 교무·학생·총무처장과의 1차협상에 들어갔으나 학교측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약속문서화를 거부함으로써 결렬되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 오후4시 2차협상에서 학생들은 「농대교수및 관계대학과의 협의한」에라는 조건이 붙은 「농대강의실의 혜화관집중배치」등이 적힌 약속문서를 받고 이날 오후9시40분경 자진해산했다.

경주캠퍼스

법학과생40여명은 지난10일부터 「교수 질적향상」「고시원 건립」「장학금 내역공개」등 3개항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번 농성은 법학과 교수들의 무책임한 강의를 거부하고 고시원 건립을 통해 고시학사 과정을 확대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는데 16일현재 교수와의 면담을 일체 거부한 채 농성중이다.

관광경영학과생 1백여명은 지난12일부터 「무능교수퇴진」과 「실습실설치」등을 요구하며 교수실및 강의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은 교수들의 성의없는 강의와 실습실설치에 대한 학교측의 무반응, 고시원건립 요구에서 시작되어 진흥관 교수연구실 3동 집기류를 부수는등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다.

경주 「壬石한마당」 마쳐

경주캠퍼스 설립10주년기념 「壬石한마당」이 지난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걸쳐 교내일원에서 다채롭게진행되었다. <관련기사 7면>

캠퍼스전진10주년으로 캠퍼스위상정립과 새로운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동국발전을 이루기위해 열린 이번 임석한마당은 「大韓美國을 大韓民國으로」라는 기치아래 초청강연회를 위시해 각학회및 써클주관의 각종전시회, 발표회등이 활발히 열려 시대모순등을 풍자, 한데 어울리는 마당이되었다.

반면에 이번 축제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단과대행사및 학회써클차원의 행사가 저조했으며, 「백상연」「연홍제」「미스 독재선발대회」등 오락물 행사와 여성의 상품화를 드러냈다.

한편 축제 마지막날인 지난14일 민주쟁취차전놀이를 마친뒤 교문앞 시위도중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을 이마에맞은 한용민(법학3)君은 2·5㎝가량 이마가 찢어지고 뼈의 이상과 뇌출혈등으로 현재 경주 신라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있다.

스승의날 기념식

사범대주최로가져

사범대 학생회주최 「스승의날」 기념식이 지난13일 오전11시 邢基柱(지리교)사범대학장등 교수·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학림관앞에서 거행되었다.

慶州 본격선거전 돌입

지난15일 총학·여총·단대후보마감

경주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진수·법4)가 지난15일 제5代총학생회·여총및 각 단대회장후보들의 기호추첨을 마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중선위원들은 기호추첨을 가진뒤 선거운동에 관한 규약들을 논의했는데, 중선위원은 모두27명으로 오는18일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각 후보자들의 포스터는 18일 오후5시까지 중선위에 제출, 일괄적으로 부착하게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유도하기위해 작년과는 투표소가 각단과 별로 설치되는데 인문대는 원효관 A207, 자연대는 A209, 상경대는 진흥관 B세미나실202, 법정대는 B세미나실102, 한의대는 한의학관 휴게실이되며 의대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각후보자들의 기호는 다음과같다.

◇총학생회 ▲기호1=正·조현제(법학3) 副·전재선(국문3) ▲기호2=正·김동선(종문3)·副·이창복(국문3) ▲기호3=正·서경윤(행정3)·副박언식(불교3)

◇총여학생회 ▲기호1=김섭우(불교3) ▲기호2=김명주(국문3) ▲기호3=남옥희(일문3) ▲기호4=김선혜(국문3)

◇인문대 ▲기호1=이재근(국사3) ▲기호2=이섭식(국문3)

◇자연대 ▲기호1=이종오(수교3) ▲기호2=강종철(조경3)

◇법정대 ▲기호1=조용원(법학3) ▲기호2=김경창(행정3)

◇상경대 ▲기호1=이상록(무역3) ▲기호2 선종실(경영(야)3) ▲기호3=고재민(무역3)

佛誕의 意義

尹炳植

[illegible] 「싯다르타」 後에 眞理를 깨침으로서 부처님이 되었고, 인류의 큰 스승, 길잡이, 등불이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의 간지스江邊에서 시작되어 그 넓은 인도를 전부채웠고, 또한 힌두스江을 건너고 높고 험한 파밀고원을 넘었다. 바다와 사막을 건너면서 세계의 半을 덮어버렸다.

그 가르침은 동양의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했고, 많은 왕들과 부자들을 움직이게 했다.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일깨워 주었고, 헤일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illegible] 살고 있었던 他人들이 [illegible]는 이와같은 동양을 동일한 사상, 문화, 또는 한 스승의 「弟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함으로서, 인종, 국가, 언어, 풍속등을 초월하게 했다. 「東洋圈」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들어오게 했다. 남남이었던 동양사람들을 가족이나 형제같은 유대감을 가질수 있게 했다. 불교는 동양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동양의 역사에서, 사상에서, 예[illegible]고 동양의 山과 들[illegible]보는 마을에서, 佛敎를 빼버릴때 동양에 과연 얼마나 남을수 있겠는가. 동양은 무엇으로써 서로를 연결시킬수 있겠는가.

2500여년전 히말라야山 기슭의 조그마한 왕국에서 있었던 어린 아기의 탄생은 정말로 크나큰사건이었다. 그 아기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그어느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軍人도, 그가 지배한만큼 넓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만큼 오래도록, 또한 철저하게 지배한 사람은 없었다. 아마앞으로도 없을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면서 부처님의偉大함을 한번더 생각하지않을 수 없다.

「韓·中共관계 개선과 불교」

佛文硏주최 학술세미나 20일 열려

불교문화연구원(원장=李載昌·불교학과 교수)주최 佛誕2532주년기념 학술세미나가 「韓·中共관계 개선과 불교」를 주제로 오는 20일 오전10시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세미나에서는 金煐泰교수가 「韓·中불교교류의 역사적 개관」, 韓鎔源(한국교원대)교수가 「韓·中共관계 개선전망」, 李載昌(불교학과)교수가 「韓·中共관계증진과 불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가진뒤 對中共관계개선을 주제로 불교종단대표자, 불교·역사학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자유토론도 갖게된다.

許衛교수 미망인

장학금 2백만원기탁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였던 故 許衛교수의 미망인 李玉順여사가 지난달 경영학과에 장학기금으로 2백만원을 기탁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학우에게 모범이되는 同科재학생에게 지급하게될 이번 장학기금은 한국투자신탁에 주식형 장기투자로 적립한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주남산 실측조사

黃壽永 前총장등

本校 黃壽永(前총장)과 金吉雄교수등이 지난13일부터 「경주 남산 탑곡 탑상군 탑본및 실측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수동정

▲書 恩(사회학과)=7월24일부터 31일까지 유고슬라비아에서열리는 「제12차 국제인류학및 민속학회의」에 참석해 논문발표예정.

▲金憲奎·郭駿圭(교육학과)=7월 13일부터 열리는 국제문화재단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차 渡美.

▲閔丙祿(연극영화학과)=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88영화T·V 기자재전」 참석차 渡日.

本社辭令

任 修習記者

▲李萬燮(인철1) ▲趙容晟(행정1) ▲金鎭赫(경행1) ▲金根泰(교육1) ▲鄭恩州(지교1) ▲金鍾聖(이부전산1) <以上 서울캠퍼스>

▲金吉樂(행정1) ▲李彰倍(관광1) <以上 경주캠퍼스>

5월16일자

1988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 학 원(주간) 전화 (직) 275—3256 (교) 267—8131~9 交2254

1、모집과정 및 학과

①석사과정

·인문계…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②박사과정

·인문계…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교육학과

·사회계…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2、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영어, 전공, 구술시험 ▲박사학위과정=영어, 전공, 구술시험, 제2외국어 (인도철·국어국문·철·국민윤리·한의학과에 한함)

3、시험일정

①원서교부및접수…1988년6월7일(화)~6월11일(토) 12시까지

②시험일시및장소…1988년6월18일(토) 오전10시 본대학원

행정대학원(야간) 전화 (직) 267—8574 (교) 267—8131~9 交2263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 연구과정, 행정관리과정

①행정학과…일반행정·공공정책·지역개발·사회복지·관광행정·언론홍보

②안보행정학과…외교국방·방위산업·군사전략·북한학

③안전관리학과…안전관리

④공안행정학과…경찰행정·교도행정·소방행정·사법행정

2、원서교부 및 접수…1988년6월9일(목)~1988년6월16일(목) 오후5시

3、전형일시 및 장소…1988년6월18일(토) 오후2시 본대학원

4、전 형 방 법…①석사과정=행정학시험, 서류전형및 면접 ②연구·행정관리과정=서류전형및 면접

경영대학원(야간) 전화 (직) 267—8140 (교) 267—8131~9 交2273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경영학과…인사관리·마아케팅·생산관리·재무관리

②회계학과…관리회계·재무회계·세무회계

③무역학과…무역이론·무역관리·국제경영

④경제학과…관리경제학·국제경제학

⑤전자계산학과…시스템시뮤레이션·전자정보처리

⑥노사관리학과…노동법·노동경제·노사관리

⑦부동산학과…부동산관리·부동산감정평가·부동산중개

2、원서교부 및 접수…1988년6월9일(목)~6월16일(목) 오후5시

3、전형일시 및 장소…1988년6월18일(토) 오후3시 본대학원

4、전 형 방 법…①석사과정:경영학일반및 면접 ②연구·관리자과정:서류전형및 면접

교육대학원(야간) 전화 (직) 269—8052 (교) 267—8131~9 交2283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①교육행정학과…교육행정·교육경영

②교과교육학과…국어·지리·역사·수학·윤리·철학·미술·체육·한문·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전자계산

2、원서교부 및 접수…1988년6월8일(수)~6월14일(화) 오후4시 (단 토요일은 오후1시까지)

3、전형일시 및 장소…1988년6월18일(토) 오후2시 본대학원

4、전 형 방 법…①석사과정—전공및 면접 ②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정보산업대학원(야간) 전화 (직) 277—6511 (교) 267—8131~45 交3292

1、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①정보관리학과…정보전산전공, 신문방송전공, 출판도서전공

②산업공학과…산업개발전공, 정보통신전공

2、원서교부 및 접수…1988년6월7일(화)~6월16일(목) 오후5시

3、전형일시 및 장소…1988년6월18일(토) 오후2시 본대학원

4、전 형 방 법…①석사과정:필기시험, 서류전형및 면접 ②연구과정및 관리자과정:서류전형및 면접

◎기타 자세한것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第995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가)급認可<우편번호 100—715> 東大新聞 西紀1988年5月17日 (火曜日) 【2】

社說

광주항쟁정신 계승하자

올해로 5·18 광주민중항쟁 8주기를 맞는다. 역사는 유전하는가. 80년 광주의 함성은 수많은 주검을 뒤로 하고 부활하고있다.「민주화의불」을 뒷걸음치게한 반동의 역사가 오늘 그 부당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광주민중항쟁 가해자들의 결사단체격인 민정당은 지난4·26총선에서의 참패로「與小野大」「四黨體制」로 변해 정국주도가 어렵게 되자 그동안禁忌視해온「광주사태의 진상조사」를 할수 밖에 없지않느냐는자기모순의 논리를 드러내고있다.

각대학과 諸민주단체들은「광주항쟁정신계승기간」을 설정하고 각종행사를 갖고 있으며「혁명광주성지순례」를 떠나는 이들의 숫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광주에서는 5·18관련단체들을 총망라한「5월광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15일부터 27일까지를 범국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전남도청및 분수대등을 기념전적지로 선포했으며 80년 당시「민주화 성회」가 열리던 도청앞에서「5·18광주민중항쟁기념식」「5월학살원흉처단과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해방광주기념 횃불대회」등을 열것이라 한다.

정부는 지난번「民和委」의 건의를 토대로 한「광주사태 치유책」을 발표했으나 여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오는 18일 다시 치유책을 발표한다고한다.

그러나 광주문제의 해결은 가해자가 시혜의 차원으로 풀려 하는 현정권이 담보할 자격이 없다. 광주문제의 직접당사자인 그들이 민주와 화해의 가식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이들이 내세우는「치유」의 말자체가 진실의 호도를 보여주고 있으며「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한 그들이「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라는 사전상의 사태의 꼬리표를 그대로 달고 말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물질적 보상은 치유가 될수 없다. 마치 80년 피의 댓가로 지어준「어린이대공원」과「무등도서관」의 붉은 벽돌건물들이 치유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볼때 이는 자명하다.

광주문제의 해결은 광주항쟁 관련자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권등이 발동되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할것이다.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소재도 물어 그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족민주세력은 빛고을의 정신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계승하는 한 지표로서 계승해야 할 것이다.

개정학칙 재고하라

학생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의 폐지와「졸업정원제」의 폐지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칙개정안이 지난 2일과 9일의 양일에 걸친 학처장회의 의결을 거치고 문교부의 승인절차만을 남겨놓음에따라 학칙개정이 거의 확실시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마련된 개정학칙이 여전히 독소조항의 잔존과 대학의 자율성보장을 위한 조항의 미비등이 지적돼 개정학칙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일고 있다.

물론 이번 학칙개정은 그동안 문제가되어 왔던 졸업정원제의 폐지라든지 학생 정치활동금지의 독소조항 삭제라든지 성적평가방법에있어 교수의 재량권증가등은 그 내용상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학칙의 조항을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내용을 지적하자면 ▲「졸업정원제」의 완전폐지에따른 관련분야, ▲「교수협의회」의 실질적 기능부여를 통한 자율성보장분야, ▲학생활동의 자율성과 학교행정의 참여 분야로 대별된다.

첫째,「졸정제」의 경우 그동안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 금년부터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되게되어있어 2·3·4학년 학생이 여전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유명무실한 기존의 교수회를「교수협의회」(가칭)로 개편해 총장의 직접선출등 학교의 제반 중요사항의 심의·의결권을 갖는 기구로서 학생의 학사행정 참여보장과 함께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학생활동에 있어 간행물에 관한 상항을 따로 정한다(개정 학칙 8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칙을 총장이 정한다고 함으로써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자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잔존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생징계상의 문제점과 장학금내역의 공개나 시험응시자격요건의 문제, 제적의 요건상의 독소조항의 잔존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러므로 총학의「동국발전추진위」에서도 이를 중시, 개정학칙의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칙개정심의시 학생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개정학칙안이 문교부의 승인을 거치기 전에, 섣사 거쳤다 할지라도 학생·교수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또한 학칙개정을 위한심의과정에 학생대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칙다운 학칙으로 개정돼야 할것이다.

時事論壇

오욕의 역사 되풀이될 수 없다

日帝下의 치욕까지 망각하는 의식에문제

「광주항쟁」은 역사망각의 대표적인 사례

張乙炳
<成均館大교수·政治커뮤니케이션학>

Ⅰ

인간의 불완전성, 특히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 겪고 보고 들은 일들을 망각의 세계로 접어 넘기기 일쑤이다. 실상 인간은 겪고 보고 들은 일들을 하나같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겪고 보고 들은 일들을 하나같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워 원만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때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의 작용은 필요하고도 선한 기능일 수도 있다.

특히 불완전한 인간이면 누구나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하나같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살아갈수 없을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망각의 작용은 인간으로하여금 염치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도록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할수도있겠다. 적어도 인간이 오늘을 웃으면서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뼈저린 아픔이나 눈물적시는 슬픔을 잊을수 있는 덕택임이 분명한것같다. 스스로 체험한 절치부심의 쓰라린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있는한, 인간들의 삶의 터전은 이를 가는 복수의 장으로 화하고 말것이다.

인간들이 만나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쓰리고 아픈 지난날의 일들을 잊고 넘길 수 있는 덕택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마음 편히 지낼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망각의 작용이 다하는 몫이 적지않을 것 같다. 요컨대 망각의 작용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선한 기능일 수 있다는 것이다.

Ⅱ

이렇듯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망각의 작용이 필요하고 선한 기능일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망각의 작용을 찬양할 수만은 없다.

뒤집어서 인간이 지난 날의 일들을 하나같이 망각의 세계로 접어넘기고 만다면, 그러한 사람은 바보 아니면 천치일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지혜란 지난날 체험했던 일이나 전해 듣고 본 일들을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거울 삼아 현실에 부딪치는 일에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나라나 사회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문화라는 것도 지난날 그 성원들이 오랫동안 터득한 지혜들을 흘려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체계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지고보면 인간의 지혜도 기억력의 소산이고, 거창하게 보면 인류의 문화도 기억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라고 할수있다. 때로는 망각의 작용이 선한 기능을 할수도 있겠지만, 기억력보다 더 값지게 평가될 수는 결코 없다. 바로 인간의 망각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력을 통해서 문화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선조들의 체험과 지혜를 되새김으로써 그것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어내자는데 있다. 바로 역사란 선조들이 알고있었고 체험했던 일들을 오늘을 사는 인간들이 알수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역사를 배우는것은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내자는데 있다. 인간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지난날을 되새기는 것은 오늘을 보다 더 슬기롭고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은 분명 긍정적(肯定的)인 교훈과 부정적(否定的)인 교훈이 있는것같다. 여기서 역사의 긍정적인 교훈이란 선조들이 잘했거나 성공했던 일들을 배움으로써 본받으려는 교훈이고, 부정적인 교훈이란 선조들이 그르쳤거나 실패했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결단코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지는 교훈이다.

역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후세 인간들에게 어떤교훈을 주는 것이기에 배울 값어치가 있다.

선조들이 잘한 일들을 통해 얻어내는 긍정적인 교훈도 중요하지만, 선조들이 잘못한 일들을 통해 배우는 부정적인 교훈도 값어치가 있다. 오히려 선조들이 잘한 일들을 본받으려는 긍정적인 교훈보다는 선조들이 잘못한 일들을 되새기며 결코 되풀이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부정적인 교훈이 더 값진 것일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역사는 긍정적인 교훈은 본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머물지만, 부정적인 교훈은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생각으로 이어지기에, 부정적인 교훈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경우처럼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킨 업적을 되새기면서 얻는 역사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이완용의 경우처럼 나라 팔아먹은 역적질을 되씹으면서 얻는 역사의 교훈은 더 절실할 것 같다. 역사의 긍정적인 교훈은 보다 잘해 보자는 여유있는 교훈이라면 부정적인 교훈은 결코 또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기에 더욱 준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한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이라면 즐거운 일이든 궂은 일이든 쉽사리 잊어버리고 망각의 세계로 접어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일들이라면 즐거운 일이든 궂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잊지말고 되새겨야 한다.

나라의 지난 일들을 기록해 놓고 되새기며 교훈을 얻어내려는 것이 역사를 정리하고 배우는 소이이다. 그리고 역사란 따지고 보면 오늘을 사는 인간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뜻이 있다. 요컨대 역사란 나라의 중대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한 나라의 역사는 후세 사람들이 지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데, 일차적인 뜻이 있다. 기억해 낼 수도, 되새길 수도 없는 일들은 제아무리 중대한 일들이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 역사, 되새길 수 있는 역사일때 비로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

Ⅲ

돌이켜 보면 우리는 역사 속에 묻힌일들은 고사하고 우리 시대에 빚어진 일들 조차 쉽사리 망각해 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스스로를「잊어버리기를 잘 하는 민족」이라고 자탄하는 소리조차 들린다. 적어도 잊어버릴 수있는 일들과 잊어버려서 안될 일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하고, 잊어버려서는 안될 일들만은 기억해서 청산하거나 매듭지어야 한다.

심지어 우리네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절치부심해야 할 일제식민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일본인들의 만행마저 망각의 세계로 접어넘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아량도 용서도 아니고, 역사의 마디를 얼버무리려는 골빈자들의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 일제시대의 청산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의 앞잡이로 동족을 수탈했고 동족에게 총뿌리를 들이댔던 자들이 아무런 반성없이 소위「해방된 조국」에서 지배층으로 둔갑할 수 있었다.

말로는 일제의 지배를「국치」라고 떠들어대면서 얼마간의 돈에 혹해 진정한 사과 한번 받아내지 못한채, 우리 스스로가 서둘러 국교를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제아무리 원수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화해하고 왕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없다.

그러나 새로 담을 헐고 왕래하며 살아가려면 지난 날의 잘못은 따지면서 맺히고 쌓인 한을 풀어야한다. 이렇듯 어두웠던 한시대를 청산하고 매듭지울 때, 새로운 관계는 수립되고 올바른 우의는 다져질 수 있다.

우리의 현대사는 일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매듭짓는데서 잘못되었기에, 그 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얼버무려지는 현상이있다. 마치 첫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모든 단추들이 하나 같이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는 현상과 비슷하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던 자들을 얼버무려 넘긴 것도 잘못 끼운 단추였고, 더구나 진정한 사과 한번 받아내지 못한채 한·일국교재개를 서두른 것도 잘못 끼운 단추였다.

이렇듯 잘못 끼운 단추는 풀어내서 처음부터 새로 끼워나가야 했음에도, 다시 끼울 생각은 하지 않고,「불행한 과거는 서로 용서하고 잊는 것이 좋다」는 구실로 얼버무리려고 들었다. 이리하여 쓰라린 일들을 기억해서 매듭짓고 청산해야 한다는 사람은 옹졸한 사람으로 치부되기에 이르렀고 잊어버리고 얼버무려 넘기자고 하는 사람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기에 이르렀다. 이만하면 가치의 전도현상도 말이 아닐성 싶다.

진정한 용서는 분명히 알고 따지면서 매듭 짓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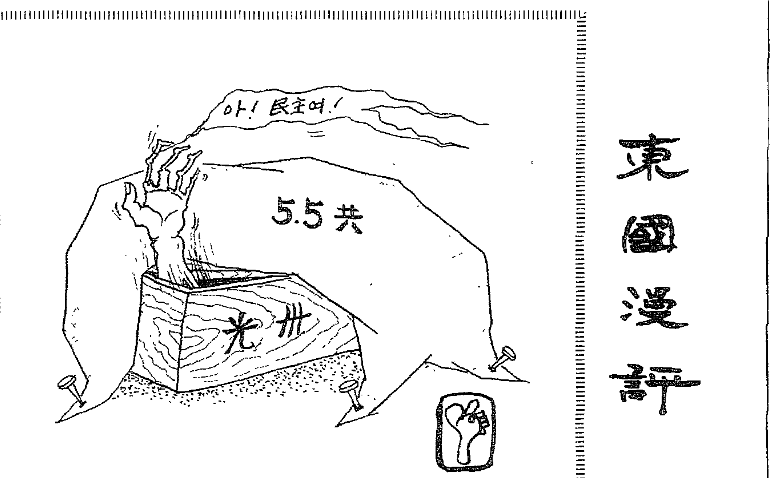
우리네 현대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이겠지만, 1970년대 우리네 역사를 왕창 후퇴시켰고 수 많은 인권을 유린했던 유신체제를 떠받들던 자들이 버젓이「유신의 본당」이라고 자처하면서 12·16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더니 4·26총선거에서는 35석이란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이른바「4당체제」하에서 전국운영의「캐스팅 보트」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유신체제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고, 유신체제의 잔영만은 지워버려야 한다고 외치고있는 이때에「유신의 본당」이 정국운영의 열쇠를 쥐게 만든 것은 역사의 망각도 유만부득이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그런가하면 1980년5월 시민대학살의 원흉들이 아직도정권을 전담하고 있으니, 역사의 망각도 이쯤되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밀려 권력자들도 시민항쟁을「義擧」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대학살의 원흉들이 계속 정권을 전담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역시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대인다운 풍모라고 얼버무릴 수있을 것인가? 망각과 용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할 것같다. 용서는 망각에서 울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따지면서 매듭지우는 일이다. 우리는 지난날을 용서하는 민족이 될지언정, 망각하고 얼버무리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1980년5월 광주학살의「원흉」들이 아직도 정권을 전담하고 있으니 역사의 망각도 이쯤되면 극에 달하고 있다.

東國漫評



◇부 활!

5월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높이나는 새가 멀리 본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모름지기 큰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잡사에 신경쓰지 않고
큰꿈을 추구하며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면 시야가 툭 터지고 온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와 나의 관계가 한결 명료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처럼 온갖 잡된 것들이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5월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던 것들, 우리를 구속해 왔던 모든것들을
툭 털어버리고 한바탕 신나게 젊음의 낭만을 즐겨봅시다.
그리고 다시 맑은 눈 크게 뜨고, 하늘 높이 날아봅시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LTD.

독재권력의 유지도구 "최루탄"

최루탄의 피해상황과 최루탄 추방의 당위성

우리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과정때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최루탄의 남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최루탄으로 인한 피해와 최루탄추방운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註>

김 지 윤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

I、머릿말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불가피한 충돌은 과잉진압과 최루탄 남용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이한열·이석규 두 열사의 죽음은 시위진압용 최루탄이 살인무기로써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최루가스는 애초 개발될 때부터 전쟁무기의 하나인 「화학무기」로써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병·생리불순·위장병·폐수포 유발과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무서운 물질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써 국회에서 「최루탄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의 성분은 인간과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그간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최루탄의 성분과 종류, 그것의 피해상황을 검토하고 최루탄이 추방 되어져야 한는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II、최루탄의 성분과 종류

1、일반적인 화학성분

최루탄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드는가? 일반적인 최루탄의 성분은 알려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되는 최루탄은 그중 어떠한 것을 함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독성을 가진 화학제란 인간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게하는 정도에서 죽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정도까지의 다양한 범위내에서 사람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 액체, 고체를 말한다. 그러나 평상온도에서 기체상태인 독성화학제는 몇가지 안되고 대부분 액체·고체상태로 존재하며 이들을 사용할 때는 가스형태로 바꾸거나 작은 입자로 만들어 안개형태로 공기중에 뿜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독성화학제중 최루탄에 사용되는 것은 주로 염소, 시안, 브롬등의 유기화합물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1>

①염소－염소는 독가스로 사용된 인류최초의 화학물질로 인체의 세포를 산화시켜 격렬한 자극을 주고 세포를 파괴한다. 유기염소제 농약인 BHC, DDT가 수십년 동안 사용되었지만 환경의 오염과 인체의 축적성 때문에 지난 70년대에 금지조치가 취해졌다.

②시안 화합물－「시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산가리(KCN)를 말한다. 청산가리는 0·1～0·2㎎이면 즉사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다. 「시안이온」이 호흡화소와 결합되어 헤모글로로빈에 의해서 운반된 산소가 이용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질식현상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모든 신체조직에 산소부족현상이 일어나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산부에게서 일어난다. 임산부에게 산소교환능력이 저하되면 기형아가 태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③브롬화합물－브롬화합물은 여성의 생식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저하시켜 생리정지현상이나 생리불순현상을 일으킨다. 실제로 여대생 중에는 생리정지나 불순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피부병·폐·간질환·탈모증세·위장병·무기력증·남성의 정자감소·신장기능마비·정신및 언어장애와 심한 경우에는 혼수상태로 생명까지 잃게된다.

2、최루가스의 종류

독극물 유기화합물중 염소, 시안, 브롬등의 성분을 주섭분으로 한 최루가스는 작용부위에 따라 크게 눈에 강하게 작용하는「최루제」와 호흡기등에 강하게 작용하는「점막자극제」로 나뉘어진다.

①최루제

최루제는 아주 작은 양으로도 눈의 점막 등을 자극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하고 고통을 준다.

(A)'CN'－원명은 '2－클로로아세토페논'이며 CN은 군사암호명이다. 세계1차대전중 합성됐으며 「메이스」라는 미제 최루탄의 주요성분이다. 눈물가스라고도 불리우는 이 화학제는 눈의 각막에 피해를 주는 고체이고 높은 농도가 투입되면 결막염을 일으켜 시력을 잃는다.

강한 고통, 심한 경련, 과도한 눈물, 시력장애, 코의 통증, 침흘리기, 고열, 감염뒤 피부의 따가운 느낌 등을 동반할 수가 있다. 최대 허용치는 0·05PPM이고, 0·02PPM이상의 농도일때 독성효과를 나타내며 치사량은 8·5PPM에 10분간 노출되었을 경우이다.

(B)'CS'－CS는 1928년 제2차 대전때 영국에서 개발해 사용했고 1958년부터 CN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사용됐다. 백색결정체로 물에 잘 녹으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절반을 치사케 하는 양은 체중㎏당 28㎎으로 성인남자(60㎏기준)에 1·68㎎을 주사하면 반수가 사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신체의 피부의 단백질성분과 작용을 일으켜 공기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강한 산을 만든다. 이때 붉은 반점이 생기면 24시간 이상 경과해야 없어지기도 한다. 이것의 화학명은 클로로벤젤리덴말리노니트릴로 0·05PPM의 아주적은 농도에서도 눈에 심한 고통을 주며, 노약자, 임산부, 폐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수있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특히 위험하다.

(C)'CR'－화학명은 디벤조옥사제핀으로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최루제로서 다른 어떤 최루제보다도 강한 독성효과를 갖고 있고, 점막이나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특히 눈에 강하게 작용한다. 치사량은 1·85PPM(2백분)이며 안구충혈을 일으키며 이 효과가 3～4시간 지속되기도 한다.

(D)'SI'－화학명은 클로로피크린으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액체이며, 강한 최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와 접촉했을때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구토, 메스꺼움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2·4PPM(1분) 이상에서는 치명적이고, 영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CS에 비해 훨씬 독성이 강하다.

②점막자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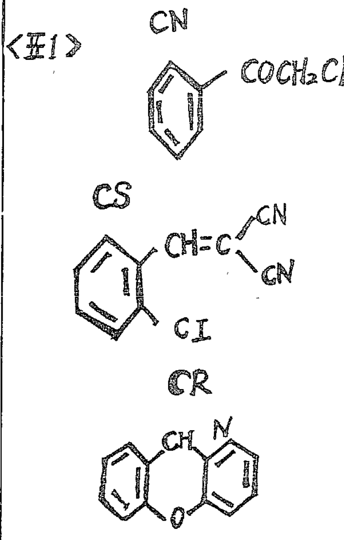
점막자극제는 눈보다 호흡기의 점막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체와 접촉했을 때 재채기, 심한 기침, 콧물, 호흡곤란, 두통등을 유발시킨다. 심하면 구토, 메스꺼움, 예민한 정신적 고통등 일시적인 무기력 상태로 빠진다.

(A)'DA'－일명 「재채기가스」로 불리우는 이 화학제는 무색의 결정 혹은 진한 갈색의 액체이다. 화학명은 「디페실클로로아르신」으로 물에 의해 천천히 분해되며 호흡기와 피부에 특히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치사량은 55PPM의 상태에서 30분간 노출된 경우이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페퍼포그가 이 DA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DM'－아담사이트라고 불리우는 고체이며 쉽게 승화된다. 눈물가스인 CN과 뒤섞어서 시위진압용 독가스로 보통 사용한다. 인체와 접촉하면 콧물이 많이 흐르고 가슴에 심한 고통을 수반하여 기침, 재채기, 구토,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최루제나 점막자극제 같은 최루설독성가스는 실제 사용시 대개는 한가지 성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노출된 피부나, 눈, 호흡기등에 강한 독성이 고르게 작용한다.

<표1>



3、최루탄의 종류와 발사방식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은 총기에 의해 발사되는 총류탄과 다연발탄, 투척용인 사과탄, 그리고 페퍼포그로 나눌수 있다.

①사과탄(KM25(SI))

크기와 모양이 사과와 비슷하며 주로 근접거리에서 투척, 시위대를 해산시키거나 주동자를 체포할때 사용된다. 파편이 20개 정도이어서 근접폭발시 화상이나 파편에 의한 상처를 입기 쉬우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X－레인」에 잘 나타나지 않으며 구토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②폭동진압용 총류탄(일명 직격탄)

이것은 소총에 끼워서 발사하도록 고안된 것인데 사정거리가 50～70m쯤되며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각도를 유지하여 곡사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루탄사용액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위군중해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안전 각도를 무시한 직격탄 발사 때문에 피해가 가장 크다.

전쟁무기의 하나인 「화학무기」로써 개발된 최루탄은 사상자와 후유증을 유발하는등 그 피해가 엄청나다. 사진은 최루탄의 직격탄에 맞아 산화한 고 이석규氏의 장례식장면.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늘어나
지나친 독성으로 생태계 파괴현상 초래

휘색, 노란색, 푸른색분말 3가지가 있으며 색깔에 따라 수포작용, 구토작용, 호흡곤란등을 일으킨다.

③지랄탄

본명은 다연발탄이며 16발 또는 32발, 64연발로 전기점화에 로켓탄과 같은 방식으로 발사된다. 유효사정 거리는 1백m이고 소리가 요란하며 파편에 의한 상처 가능성은 없으나 불이 나면서 연기를 내므로 화상이나 발화의 위험이 높다.

④가스차(페퍼포그)

차에서 뿜어대는 최루가스는 최루의 효과보다 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차의 종류에는 1호차(버스형), 2호차(타이탄 개조), 3호차(지프차형)가 있는데 2, 3호차는 크기가 작고 뒤집어질 염려가 있어 통상1호차를 사용하며 이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온다.

III、최루탄의 피해

1、인체에 미치는 피해

최루탄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크게 발사방식에서 안전수칙을 어긴 직격탄에 맞아서 생기는 피해와 최루탄이 갖고 있는 독가스 성분에 의한 피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직격탄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87년6월9일 연세대 정문에서 전경이 쏜 직격탄에 맞아 생명을 잃은 이한열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군의 사망원인은 좌측의 후두부 손상, 지주막하출혈과 중막하출혈, 좁쌀크기의 금속성 파편 4～5개가 소뇌와 연수에 박혀있고 두피3군데 결손이었는데 이것은 최루탄의 직격탄이 뒷머리에 명중되어 파편이 뇌 속까지 파고 들어 생긴 불행한 참사로써 최루탄이 살인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민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최루탄에 의한 부상과 사망은 최루가스에 의한 것보다 최루탄의 안전수칙을 어긴 직격탄과 파편에 의한 것이다.

1987년 6·10 투쟁을 전후한 며칠동안 최루탄에 의한 피해는 곳곳에서 속출했다. 가벼운 화상을 입거나 최루탄파편이 박힌 경상을 입은 사람은 부지기수였고 적어도 눈에 파편이 박히고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맞아야만 최루탄 피해자라고 할 만했으며 정확한 피해상황과 피해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6·10대회 당일에도 최루탄에 의한 중상자가 쏟아졌다. 한국외국어대 신방과 김종필군은 SY44탄을 오른쪽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중환자실에서 2시간의 뇌수술을 받고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오후 8시경 명동입구에서는 이민주군이 경찰이 등뒤 3m거리에서 쏜 직격탄에 맞아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 6월11일 숭실대생 임병진군은 경찰이 던진 사과탄 파편에 맞아 왼쪽안구가 파열됐다.

87년 고려대에서 1학기동안 조사된 부상자 수만도 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피해자수는 정확히 집계만 된다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최루가스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자.

국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최루가스의 피해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일은 지난 84년 민정당사 농성에 참여했던 성균관대 백충용군이 당시 폐쇄된 공간에 무차별 난사했던 최루독가스 후유증으로 신장기능이 완전불능상태에 빠져 아버지의 신장1개를 이식수술 받은 사건이다.

지난 3월20일 부산일보에 의하면 시위하던 군중옆을 지나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이 머리위에서 터지면서 최루가스가 눈안에 들어가 실명된 成모군(14·Y중2년)의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3천2백16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최루가스의 피해중 가장 심각한것은 피부염인데 대학가 주변인 신림·봉천·제기·안암·이문·명륜·신촌등지에 사는 주민들은 눈물과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는 직접적인 피해단계를 넘어 피부염·비염·안질·호흡기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다.

서독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가 많이쓰는 CS가스에 과잉 노출된 사람은 폐질환, 피부질환, 심지어는 간질환의 유발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며 이밖에 최루가스는 눈에 강한 자극을 줘서 결막염의 위험성이 높으며 각기증세, 만성적 습진, 무력감 등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다.

2、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대량으로 발사되는 최루탄은 자연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희대 윤무부교수가 연세대와 경희대를 대상으로 86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색 찌르레기, 흰눈썹황금새, 노랑때까치, 박새등이 현저히 줄어 들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4～6월이 새의 번식기인데 이 기간중에 시위가 빈발하고, 새들이 청각이나 후각이 발달해 최루탄 발사음이나 독가스를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새들의 먹이가 되는 나비, 벌등 곤충류까지 자취를 감춰 먹이사슬이 단절,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루가스는 식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정문주변의 철쭉은 봄에 꽃봉우리가 피지도 못하고 시들었으나 후문 쪽은 만개했다. 연세대 생물학 이순희 교수는 「최루가스가 동물뿐아니고 식물의 잎 특히 엽록소등에 영향을주어 세포의 호흡이 부진해지는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으며 태능부근에 사는 한 생물학 교수는 불암산, 봉화산등에 새가 현저하게 줄어든것도 최루가스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짓는다. 서울의 바람이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시위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태능에서도 최루가스를맡을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억압정권 타도만이 진정한 추방의 길

IV、최루탄 추방운동

이상으로 기존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최루탄의 섬분과 종류, 그것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루탄이 추방되어져야되는 필요성을 살피고 이글을 맺고자 한다.

1987년은 이한열열사의 죽음과 6·10투쟁, 대통령선거, 88년들어 총선을 거치면서 최루탄에 피해를 입게되자 최루탄 추방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최루탄 추방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NCC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등 여성계였다.

이들은 「국민생명 위협하는 최루탄을 추방합시다」란는 성명을 발표, 『우리는 자식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환자가 되지 않을까 전율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루탄 추방대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루탄의 독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최루탄 제조업체 및 계열사의 상품 불매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으며, 국민운동본부, 대학, 한국공해문제연구소등 각계 각층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최루탄은 왜 추방되어져야 하는가?

첫째, 최루탄은 이를 쏘는 전경 자신과 학생, 노동자, 애국시민등 누구에게나 무차별로 작용하여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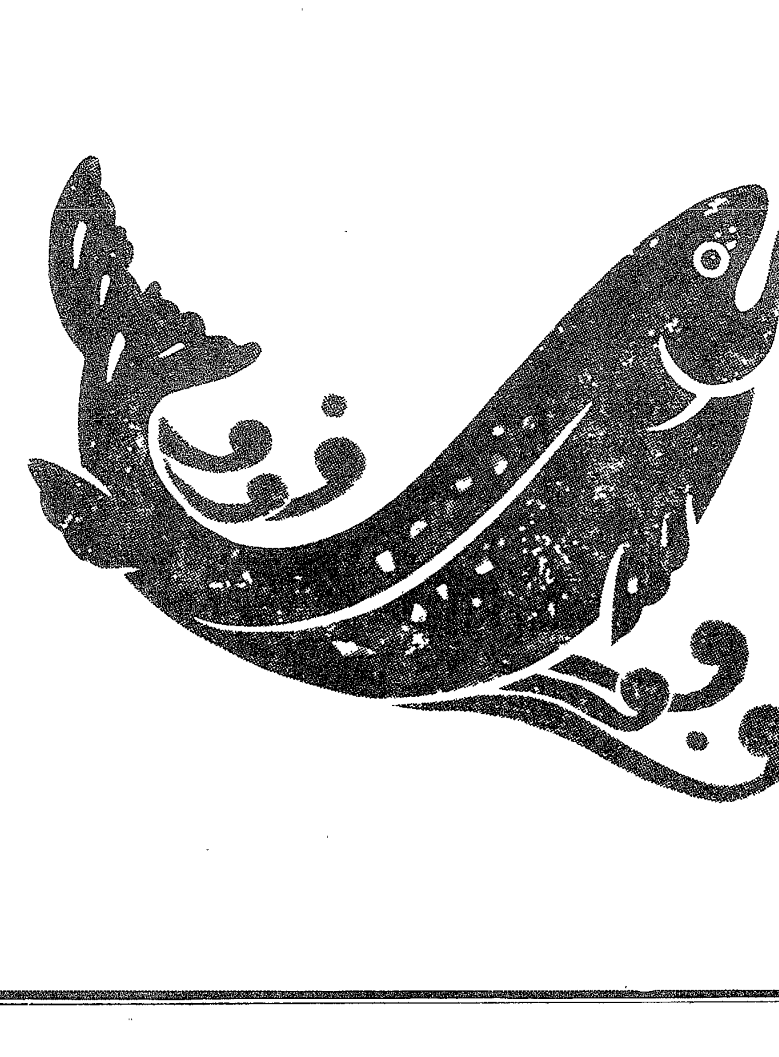
둘째, 최루탄은 자연계를 파괴하여 시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최루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작되어지나 도리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고 특정 자본가나 재벌의 부도덕한 부의 축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독재정권,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의사표현의 한 수단으로서의 평화적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협박하는 정권자체가 민주화되는 길만이 최루탄추방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⑬ 질서를 지키는 사회

동부그룹의 기업정신은 질서·신뢰·사랑입니다.



낚싯대로 고기를 잡되 그물질은 하지 말고,
나는 새는 쏘되 자는 새는 쏘지 말라.
－論語에서－

남보다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하고
남보다 많은 새를 잡기 위해 자는 새도 쏘려는
분별없는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셨읍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자기에게 어울리는
부(富)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진실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채
토끼 둘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잡았을때
우리 모두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이제 「나」에 대한 이기심보다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있고
상식이 통하는 질서있는 사회를
생각할 때입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으며,
나는 새는 쏘되 자는 새는 쏘지 않는
의연한 마음과 자세를…

동부그룹은 한결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질서, 신뢰, 사랑의 그룹정신을 바탕으로
화려하지 않으나 알차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일하는 기업으로 철강, 건설, 화학,
무역, 금융, 보험, 전자, 운송등
각 분야에서 내실있는 기반을
꾸준히 다져나가고 있읍니다.

동부그룹

기획시리즈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진단하며

반공이데올로기의 계급성

—지배의 본질과 효과

한 지 수
<고려대 정외과 석사과정>

◇글싣는 차례
1) 분단상황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대립양상
2) 지배이데올로기의 사적고찰
3)반공 이데올로기의 계급지배적 성격
4) 제국주의의 민족지배 이데올로기
5) 민중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전망
6) 시리즈를 마치며

1、지배이데올로기의 필요성

反共이데올로기는 마치 인류의 역사속에 이미 침전되어있는 진리인 것처럼, 불변하는 자연적 섭리이기나 한듯이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다。

과연 반공이데올로기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하여 그 지배적 힘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의 지배효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명은 먼저 지배이데올로기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노동을 통해 생활자원을 확보하는 인간은 그 물적조건의 효율적 재생산을 위하여 서로 협동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물질적 생산의 발전에 있어서의 각 단계는 상이한 형태의 사회적 협동、특이한 유형의 기술적·물질적 생산、그리고 상이한 종류의 정치적 조직을 낳지만、각각의 주요한 생산양식은 일부의 노동에 대한 다른 일부의 착취에 기초하는 것이었다。즉 그 근거에 계급대립이란 적대적인 모순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계급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바로 계급간의 진정한 관계를 감추고 사회관계를 조화로운 것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지배를 유지하려 한다。

「물질적인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인 생산수단도 갖게되면」이를통해「계급이익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공동이익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지배이데올로기는 이처럼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배계급의 이익에 기여한다。그리고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는 계급구조、사회전체지배질서의 유지보장、지배계급에 기여하는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는 전체사회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날수있다。따라서 지배이데올로기는 지배구조의 효과적인 재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는것이다。

그럼 한국사회에 있어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해온 反共이데올로기는 어떠한가?여기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수행하는 역할—계급모순의 은폐와 지배구조의 정당화—을 살피고、그것이 형성되어온 뿌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몇가지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2、반공이데올로기 형성의 특질

반공은 미국주도하의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이루고 있는 지배연합의 공통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합의를 내포하고 있다。또 반공은 민족해방운동이 활발하고 그를 통해 사회주의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 제3세계 일반에 대한 미국의 세계전략적 대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여타의 제3세계지역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현실적 존재가치를 획득할 기반이 없었던데 비하여 우리사회에는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일 수 있는、지형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은 직접적·현실적 경험의 바탕위에 반공이데올로기가 그 효능을 가질 수밖에없는 조건을 제공했다。이는 그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교환작업이 용이할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할 점은 반공이데올로기가 분단、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의 경험이 곧바로 성장하여 지배이데올로기화한 것이 아니라는점이다。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신의 은총에 의해 지배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배이데올로기화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지배이데올로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에 의해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호출되고 다시 확산되는 것이어야 한다。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에 대한 일면적 인식을 강요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고정된 관념들을 창출해 냈다。전쟁당시의 참혹한 경험적 사실들을 쏟아부음으로써 주형된 것이었다。즉 반공은 지배세력에 의해 유일한 가치로 선택되고 그것에 일종의 의미를 부여하여 한국전쟁을 통해 내면화된 정서、감정、사회심리적 의식위에 제시하고 배열한후 이제 그 틀안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도록 강요해왔다。

이제 反共이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직접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도 비자발적으로 참가하게되는 환경과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어떤 상상적인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과장되어야했다。

이처럼 反共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을통한 경험과 분단상황의 내면화를 바탕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것이 지배계급에의해 지배이데올로기화되는 과정에서 저항없이 정착할수 있었던것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해방이후 계속된 좌익진영과 저항운동에 대한 탄압속에서 특히 한국전쟁이후 이러한 세력들이 궤멸되어 지배세력에 대항할만한 세력이 전멸된 상태에서、민중의 정치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역사가 지속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지배이데올로기의 공세를 거부할만한 내부의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원인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이는 민중들의 저항운동이 성장하고、특히 80년이후 이 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지양하려는 변혁운동으로 고양된 이후 점차 반공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폭로되어 그 지배력이 도전받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되는 점이다。

3、반공이데올로기의 본질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은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강제력의 행사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폭력성을 수반하는 이데올로기로 각인되어 왔다고 할수있다。이제 이렇게 형성된 반공이데올로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배이데올로기의 본질은 그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고 지배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있다。한국사회에 있어 반공이데올로기 역시 분단국가 44년이란 시간속에서 강요당한 기형적 사회변화속에서 응축·표출되어온 모순을 은폐하고 지배세력의 매판성과 계급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1945년、아직은 단결된 힘으로 존재하던 우리민족앞에 다가온 해방은 일제하의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지배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차단되었고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대항할 민족내부의 통합된 역량이 부재한 가운데 세계자본주의체제에의 편입과 분단국가의 수립을 결과하였다。

독재은폐로 지배구조 정당화 해
자의적 동의보다 강제 억압적 방법으로 활용

구질서를 대표하는 한민당과 이승만은 이러한 제국주의의 논리와 결탁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친미반공국가의 성격을 강화해갔다。이후 5·16군부쿠데타이후 지속되는 군부정권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용이하게 해주는 국내의 지주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이에 경제개발을 통해 성장해온 국내 예속독점자본의 계급적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더하였다。

제국주의의 지배와 이에 결탁한 국내지배세력은 그 취약한 정통성의 기반을 반공이데올로기의 활용을 통하여 보완하고자하였다。이들 지배세력은 국민을「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공공선의 대표자로 자처하며 항상 예견되는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정권으로 인식을 정당화하였다。반공이데올로기는「발전」과「번영」그리고발전과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안보」、안보에 유익한「사회안전」등의 각종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동원을 통해 더욱 그 힘을 강화하였다。

또한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은 성립부터 제국주의자본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타협으로 이끌 수 있는 물적토대의 내적기반이 결여됨으로 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즉 국내 예속독점자본의 이익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억압하고 단결을 탄압함으로써만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엄청난 물리력에 의한 이들 저항에 대한 탄압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즉최우선의 국가이익인 反共을 지키기 위한 안보의 필요성은 사회의 특수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타의 갈등은 일단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결국 지고의 가치로 선택된「反共」은 분단체제와 종속적 자본주의 질서를 통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위장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해온것이다。

이처럼 일부지배계급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으로 대표됨으로써 지배계급의 계급성은 정당화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체제를 유일한 선택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을 은폐해왔다。

◇군사독재는 반국가보안법을 양심수에게 확대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종속적 자본주의와 분단체제로부터 이익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세력과 민족해방운동세력의 대립을 단순히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대립으로 전치시켜 버리고 따라서 미국은 우리의해방자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방으로 표상되었다。

마치 카메라가 암실에서 상이 뒤집어져 나타나는 것처럼 반대의 관계로 변형된 것이다。

이처럼 반공이데올로기는 제국주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고 국내지배세력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해주며 국내예속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본질을 지니고있는 것으로써 지배를 위해 선택、활용된것이다。

4、지배 이데올로기의 지배효과

그 본질상 명백히 계급성을 지닌 반공이데올로기의 지배효과는 무엇보다도 지배세력의 무제한적인 물리적 강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함으로써、사회적 정치적 위기에대한 억압적인 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력은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다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으며、이렇게강화된 힘을 빌어 지배세력에 대한 일체의 도전을 반공의 검으로 탄압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반공이데올로기는 또한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 모순의 해결과 변화를 위한 대안의 모색을 봉쇄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입장의 표명자체가 그리고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자체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혼란은 국민총화와 화합을 저해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며 이는 결국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공산세력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반공의 국시에 위배된다는 논리하에서 금기시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협시하는 여론을 조작함으로써、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명분을 제공하고 노동운동을 고립시켜왔다。반공이데올로기는 또 노동계급 자신들의、계급적 이해를 실현할수있는 이념적 무기를 발견할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계급적 이해에 대한 의식화를 저지하였다。이는 노동계급 스스로 하나의 계급으로서 지니는 집단적 이익을 자각하면서 해결할수있는 연대감의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적 이익에 매몰되는 개별적 존재로 분리하는 역할을하였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안보논리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노동운동의 성장 저해뿐아니라、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의 발전 또한 제약 해왔으며 그에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무제한적 자원을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발견하였다。반공을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사범에게 적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시국관련양심범에게 확대적용함으로써 1심판결이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왔다。

반공이데올로기는 또한 중간계급의 정치적 성향을 체제안주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실 매개체통해 반공이념의 본질 폭로해야

이미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공산주의 모델이 상식화되어 있는 이들에게 변혁운동=체제전복=공산화라는 도식의 일방적 선전은 이들로하여금「변혁공포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한것이며、반공은 이제 중간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안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중간계급의 보수적 성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동질성을 회복할수있는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대관계를 조장하였으며 남북한의 통합적 상태가 아니라 남한만의 단독사회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로 상식화시킴으로써 분단고착화에 기여하였다。

결국 반공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에 의해 활용되면서 이 사회의 모순을 은폐、지배계급의 계급성을 정당화하면서、이를 비판극복하고、이사회의 모순을 지양하려는 일체의 노력을 억압해온 것이다。

5、반공이데올로기의 역사적 형성과 그 특징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지니고있는 본질、반공이데올로기의 지배효과들을 고찰하는 과정은 곧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굴절된 시야를 바로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하다。

특히 반공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침투되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그 경로를 차단하고 역사의 올바른 진전에 일치하는 세계관을 확산해가는 과정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역공세로서 지배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을 잠식해가는 방법이 될것이다。

또 반공이데올로기가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 도덕적 지적 지도력을 획득한 세계관이 아니라 이에 저항할만한 강력한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속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민중운동의 성장과 함께 그 허구성이 폭로되고 상당부분 그 지배적 힘이 해체되어갈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수준에서 볼때 비합리적인 레드콤플렉스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직접적인 대립과 돌파를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항하려는 것은 자칫 대중적 기반의 확대를 저해할 오류를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의 해체에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매우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매개를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그 지배력을 기반으로부터 침식해들어가야 할것이다。여기에는 또한 반공을 강화해온 제반악법철폐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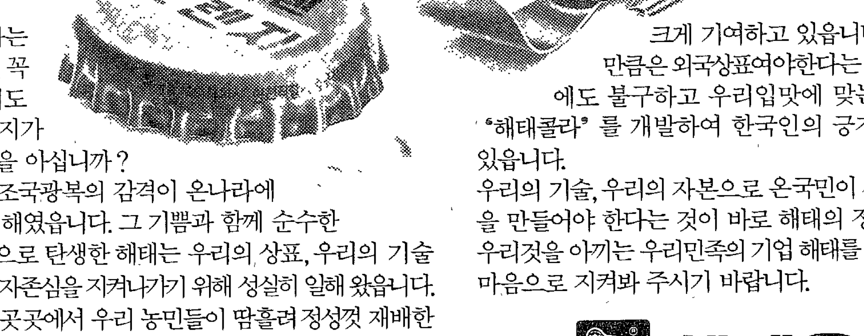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은 또한 반공이라는 가상적 일관성에 통합된 대중들이 스스로 이탈、올바른 세계관내에서 결합하는 과정이기도하다。

鹿苑

劃一的인 교육

▲얼마전 서울某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자신들의 이념및 노선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투쟁의 한방법으로 중·고교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이른바「의식화 편지보내기운동」을 시도했었다。그중 중고교학생들 앞으로 보낸 편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우리의 적은 같은 동포인 북한이 아니라 미국등 외세라는 것」「친구 아빠는 스텔라 자가용을 가진 사장인데 우리아빤 왜 지하철공사장 노동자인가 하는 계급간의 대립을 다룬내용」「반공교육은 분단극복과 민족해방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동족을 미워하는 반공교육은 우리민족을 두동강이낸 외세와함께 통일의 방해꾼이다」그외에도「미국은 리비아 국민들을 무참히 살상했다」「우리형, 누나들이 애써서 일해 놓으면 알짜로 미국이 빼간다」「골프치고 호텔에서 커피마시고 논다」「TV뉴스에 근엄한 얼굴들을 내보이는 돈많은 인간들이 모인 국회」「손까딱 하지않고 자가용타고 골프치는 사장은 하루에 1천만원 벌지만 미싱대앞에서 하루 15시간 일하는 누나는 한달에 8만원 번다」등이다。▲감수성이 지극히 예민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안목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않은 중·고교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현상은 가치관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중·고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배운 대학 신입생들까지도 4·5월은 으레히 데모하는 달로만 알고 있다。지난 6·10대회, 12·16선거중의 시위로 수업도 못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선생님 형·언니들이 왜 데모하죠』등의 물음은 교사를 당황하게 한다。「독재지원 내정간섭 미국놈을 몰아내자」등에서 우방국이라고 배운 미국을 왜 몰아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것이다。▲5·18광주항쟁 8주기를 맞아 전국에 갑호비상령이 선포되었다。또 한번 대학가의 캠퍼스는 온통 최루탄가스로 물들어 버릴 것이다。이를 지켜보는 중·고교생들의 시각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이러한 모순사회는 타파되어야하며 왜곡된 정치이념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획일적인 교육은 5월이 가기전에 바꾸어야 할 것이다。 <星>

"쉽게 따는 병뚜껑, 캔꼭지 하나에도 우리의 자존심이 숨쉬고 있읍니다."



무심코 따는 병뚜껑, 캔 꼭지 하나에도 우리의 긍지가 담겨있음을 아십니까?
1945년, 조국광복의 감격이 온나라에 가득하던 해였읍니다. 그 기쁨과 함께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탄생한 해태는 우리의 상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성실히 일해 왔읍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정성껏 재배한 사과, 포도, 감귤등의 과일과 보리를 대량수매하여 만들어지는 "해태써니텐" "해태보리텐" 은 농가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특히 콜라만큼은 외국상표여야한다는 주위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입맛에 맞는 우리상표의 "해태콜라" 를 개발하여 한국인의 긍지를 지켜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본으로 온국민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해태의 정신입니다.
우리것을 아끼는 우리민족의 기업 해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음료

천연과일쥬스로 만든 써니텐 건강보리음료 보리텐 우리의 것 해태콜라

"군부독재·미제「인식」의 계기 마련"

——광주항쟁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5·18 계급이기주의적 사고 극복 반미 자주화운동 초석 마련

『…국민의 피땀이 묻은 방위세로 무장한 군대, 외적의 침략을 막으라고 주어진 총검을 이 나라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리다니…, 이런 군대는 필요없다. 주인을 모르고 미쳐 날뛰는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누가 이 군인들을 미치게 했는가, 국민을 살상하라고 명령한 원흉은 누구인가?…』 (김성용신부의 증언)

1、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다시 5월이 왔다. 8년전 5월, 20년 유신독재의 종말로 찾아온 민주화의 봄에 한반도 남단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항거는 반독재민주화, 반외세자주화, 조국의 통일이란는 우리운동의 길에 한 이정표를 긋는 대항쟁이였다.

우리 민족민중운동을 비약적 국면에 접어들게 했던 광주항쟁은 군부가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철저히 압살하는 실체임과 더불어 제국주의 세력, 특히 미국을 한국사회의 모순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80년 광주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린는 80년의 광주를 되돌아보면서 광주민중항쟁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먼저, 광주항쟁은 지역감정이나 일시적 충돌에 의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8·15후 분단과 종속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사회구조 전반에 누적, 심화된 모순의 표출이었으며 외세와 독재에 억압당한 민중들의 변혁열기가 가시적으로 분출한 역사의 필연이었다.

둘째로, 항쟁에서 보여준 민중들의 단호한 투쟁에의 참가이다. 부장항쟁기간 보여준 기층민들의 적극적 참가와 고도의 치안질서를 유지해준 점등은 그들의 높은 도덕섬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세째, 광주민중항쟁에 있어서 광주란는 지역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가혹하게 수탈을 당해온 지역, 5·16쿠데타이후 朴정권에 의한 정치, 경제적 소외지가 광주인 것이다. 이러한 광주지역의 특수성을 올바로 이해할때 군산독재가 조작해낸 지역감정도 극복할 수 있고 전국적인 단결도 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광주민중항쟁은 광주를 통해 미국과 그 대리정권의 실체를 보고 우리민족민주운동의 좌표가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임을 명확히 해 주었으며 우리운동의 주체는 민중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2、광주민중항쟁의 객관적 배경

1) 국내의 정치적 상황

(1)유신체제에서 10·26까지

70년대 한국은 정치적 암흑기 였다. 외세와 그 대리권력의 권익보장을 위해 60년대 이후 취해진 외자에의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은 이농과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가져왔다.

삼선개헌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권력투쟁과 민중의 민주화열망에 대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위기의식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고립화등을 그 배경으로 하면서 안보논리를 내세워 제정된 유신헌법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혹독한 헌법이었다. 이 유신체제는 민중의 민주적 제 권리를 모두 배제해 버렸다. 유신체제의 성립근거는 70년에 분출된 일련의 정치 경제적 위기에 대한 군부독재의 자구책이라 보여진다.

70년대말 세계 불황의 여파와 간악한 파쇼 독재체제의 탄압은 더이상 이땅의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들을 고요한 침묵으로 두지는 않았다.

특히 79년 8월 YH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중요한 전환의 계기였다.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신민당이란는 기존의 정치세력을 끌어들여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을 정치적 위기상황으로 전환시키는 데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내외적 정세의 구조적 위기심화로 정치군부, 국내자본, 해외자본등은 그내면화된 모순을 표면화 한다. 거기다 국내자본이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게 됨에따라 미국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보호주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유신체제는 결국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이라는 최후의 방법까지 동원했다.

급기야는 야당당수의 제명과 박정권의 무력탄압은 그간의 정치, 경제적 억압에 대한 불만과 잠재적 역량이 부산·마산지역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연합하여「부마항쟁」으로 발전하였고 이 민중의 잠재력 앞에서 군부독재 내부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박의 암살로 권력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공간이 열리자 끓어오르는 민중의 민주화열기는 80년「서울의봄」을 도래하게 했다.

(2) 10·26이후

10·26에서 5·17을 거치는 동안 형성된 80년대 지배권력내부의 상황은 70년대의 유신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재편된 것에 불과하다.

10·26의 정치적 의미는 부마민중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그 준비작업으로 인하여 한국내에서 발생할 혁명적 사태를 우려한 미국에 의해 놀아난 유신세력들의 내부분열이였다. 따라서 10·26은 4·19때에 이승만이 미국에 의해 하야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속에서 제반 민주화운동세력들이 10·26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채 혼란감에 빠져 있을때 12·12사태가 발생한다.

당시 최규하 과도정부는 안보, 경제, 민주화 순으로 중요도를 역설하여 유신잔재세력들이 반격의 전열을 가다듬을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재야 보수정치세력도 주도권 장악을 위한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제거하는 것을 첫신호로 군부내 소장강경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12·12는 단순하게 군부내의 세력다툼이라는 성격을 넘어서서 군부내의 극우 소장파와 정승화를 주축으로 하는 세력간의 투쟁으로써 극우 소장파는 유신노선의 강력한 계승자였다. 정을 주축으로한 세력은 군부내의 강경파와 미국측 보수세력과의 이해상충을 일으켰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은 12·12를 묵인해 주었으며, 극우소장파를 중심으로한 세력은 서부전선의 기갑 및 보병사단을 동원하여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렇듯 유신체제의 지지계승세력이 계속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는 자리바꿈의 상황이었다.

이들 군부내의 소장강경파는 유신을 통해 강화된 물리력과 재벌의 자금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자신의 기반으로 하였고, 경직된 안보논리로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압박하면서 자기세력의 재편, 강화에 매진해 나아가게 된다.

2) 1980년 당시 한국경제의 동향

외자에 의한 고도성장을 지속해오던 국내의 경제는 79년을 고비로 불황국면에 접어든다. 80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5·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76~78년의 전례없는 호황뒤에 급작스런 불황은 국내 경기를 저성장, 국제수지적자의 확대라는 이중고 속에 빠져들게 했다.

무리한 성장위주의 정책이 부의 불평등 분배를 강화시켰고, 경제불황의 부담이 민중에게 전가되자 민중과 자본과의 대립은 한층 격화된다.

또한 80년대에 들어 외채누적, 높은 인플레이션, 만성적 재정적자는 고도성장정책의 부산물로서, 자본축적의 매카니즘은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투자현황의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6·5%의 투자감소율을 보이게 되며,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은 생산및 출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국내시장은 GNP의 마이너스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대중의 소비수요가 위축되어 내수경기가 전례없는 침체를 겪였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인구의 감소로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1·6% 확대되었으며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4·7%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데 비하여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부의 일방적 분배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누적된 불만은 정치적인 변혁기를 맞이하여 폭발적으로 고양될 수 밖에 없었다.

3) 미국의 동향

45년 미군정3년이후 한국을 지배해온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을 대소전진기지의 확보, 경제적 침탈의 장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끊임없이 간섭, 개입해왔던 것이다. 4·19때 이승만의 하야나, 朴정권이 미국의 말을 듣지않자 이를 무마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는 어떤 도의성에 의한것도 아니었고 단지 자국이익에 충실한 미국 본래의 본질에의해 10·26을 일으킨 것이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민주화일정을 촉구하는등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이원집정부제」의 권고등 정치군부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타협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소장강경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80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한국에서 미국의 기득권이 축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대관심사였다.

이점에 있어서 미국 서부지역의 군산복합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당시 공화당 대통령후보 레이건일파와 전두환일파 사이에서 긴밀한 관계가 추진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팀 스피리트 80훈련에서는「한국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정규전 대책훈련」「국내 폭동진압훈련」에 중점을 두는등「한국을 상실하게 되는 사태」에 대한 위기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4) 전남및광주지역의특수성

박정권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대외의존적 공업화정책은 국내자본의 매판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다. 특히 전남지역은 차정권의 지역편향개발정책에 의해 식량공급기지로 규정됨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전국 농·공의 비율은 18 : 30%, 전남지역은 38 : 19%), 종속적 공업화과정에서 농업은 저곡가 정책에 따른 수탈정책으로 몰락하였음에도 이 지역은 값싼 식량의 보급지로 농민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공업생산의 기반은 하청 경제적 성격을 갖는 영세기업이 전체의 80%를 점하여 부가가치 생산이 낮은 1차가공이나 단순조립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주변 농촌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영세중소기업체의 불안정한 고용, 도시룸펜의 상태로 존재하며 빈민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취업인구가 18·19%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체도 매우 영세하다. 광주시는 제조업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전남의 교육·문화 소비의 중심도시로서 위치 지워져 있다. 이러한 강한 소비도시적인 특질들로 인해 증심가는 서울의 명동거리를 방불케 하는 화려함으로 상대적인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역사적 진실을 통해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한다.

직업 \ 분류	부상자	사망자	구속자	계
① 저임금노동자·무직·도시빈민	161(38.7%)	60(52.1%)	140(51.8%)	361(45%)
② 운전기사	27(6.4)	6(5.2)	26(9.6)	59(7.3)
③ 농 업	26(6.2)	1(0.9)	34(12.6)	61(7.6)
④ 영세자영업	27(6.4)	10(8.6)	10(3.7)	47(5.9)
⑤ 회사원	28(6.7)	8(6.9)	7(2.5)	43(5.4)
⑥ 방위병	3(0.7)	1(0.9)	7(2.5)	11(1.4)
⑦ 초·중·고생	76(18.2)	19(16.5)	17(6.2)	112(14)
⑧ 대학생	55(13.2)	8(6.9)	23(8.5)	86(10.7)
⑨ 공무원	5(1.2)	1(0.9)	1(0.4)	7(0.8)
⑩ 대학교수	·	·	·	0
⑪초중등교사	2(0.4)	1(0.9)	3(1.1)	6(0.7)
⑫전문직	3(0.7)	·	1(0.4)	4(0.4)
⑬정당인	1(0.2)	·	1(0.4)	2(0.2)
⑭성직자	·	·	·	0
⑮소경영주	2(0.4)	·	·	2(0.2)
계	416(100%)	115(100%)	270(100%)	801(100%)

<5월 광주민중항쟁 관련 통계자료>

3、10·26이후 5·17쿠데타까지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10·26은 민주화운동의 직접적 결과라기 보다는 간접적 결과였다. 그당시 민주화운동세력 내부에서는 정국에 대한 통일적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기구중심의 청년운동그룹을 포함한 재야운동의 주역량을 총집결하여 유신잔당의 재등장을 분쇄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학생운동세력은 역량을 축적하고 결정적 시기에 투쟁한다는 준비론적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노선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의 철폐에는 일치하였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이정표인 80년 운동의 흐름을 학생운동·노동운동·기구중심의 재야운동으로 대별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학생운동

이시기의 학생운동권은 학원내부의 유신잔재인 비민주적 요소의 척결에 주력하는「학원민주화」와「학생활동의 자율화」기본방침을 세우는 한편 학원을 병영화시키는 병영집체훈련 거부투쟁도 가열차게 전개한다.

이렇게 축적된 역량에 기초하여 4월14일 전두환의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겸임을통한 제2쿠데타를 기화로 5월에 들어서는 폭발적인 정치투쟁을 확산시킨다. 5·15일의 서울역광장 시국성토대회 (학생과 시민 20만운집)는 이 투쟁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렇게 고양되어가는 열기속에서 학생운동의 지도부 역할을 맡고있던 총학생회는 5월15일을 기점으로 투쟁을 중지하고 정국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앞으로의 방침을 세우겠다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학생운동을 타운동과의 연계를 통한 전체사회운동적 시각에 서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민중의 내적역량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2) 노동운동

이시기의 노동운동은 체불임금지급, 임금인상요구와 어용노조 철폐문제가 주요이슈로 대두되면서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노동운동이 고양되고 있었다. 80년4월21일 부터 시작된 사북노동자 봉기가 계기를 이루어 노동운동은 점차「계엄해제」등의 정치적 요구로 발전해, 이후 노동운동은 정치투쟁화 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직된 안보논리는 국민의 민주열망 압박할 뿐"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총에로 영향을 미쳐 5월13일 노총주최의「노동기본권 확보 전국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80년의 노동쟁의는 무려 2천1백68건의 쟁의발생횟수가 말해주듯 폭발적 고양기를 맞고 있었다.

3) 기구중심의 재야운동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은 11월24일 YWCA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유신잔재세력들이 정권장악을 시도하기 전에 모든 민주세력이 연합하여 민주적 정권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일부 학생운동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던「민주청년협의회」가 중요한 몫으로 참가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1차단계의 운동목표를 기존 현실 정치인의 집권으로 삼았다. 군산독재가 아닌 민간정부가 들어서면 민주적 기본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층민중의 역량이 비로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소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4、광주민중항쟁의 의미와 발전적계승을 위하여

2천여 광주시민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피로써 얻어진 교훈을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5월을 맞이하여 되새겨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80년5월의 의미와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론을 맺어볼까 한다.

첫째, 광주항쟁은 어떤 특정한 계급에 의한것이 아니라 노동자, 학생, 빈민, 농민, 소시민등 거의 전민중의 참가에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운동의 조직적 과제를 말해주는 것으로 계급이기주의적사고를 하는 이들의 오류를 명백히 지적해 주고있다〈도표참고〉. 그러나 전민중의 참여는 강고한 지도력의 존재하에 통일적으로 결합될때 운동의 성과가 조직적으로 수렴·보존·확대될수있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 광주항쟁시 투쟁의 실질적 지도력이 기층민에게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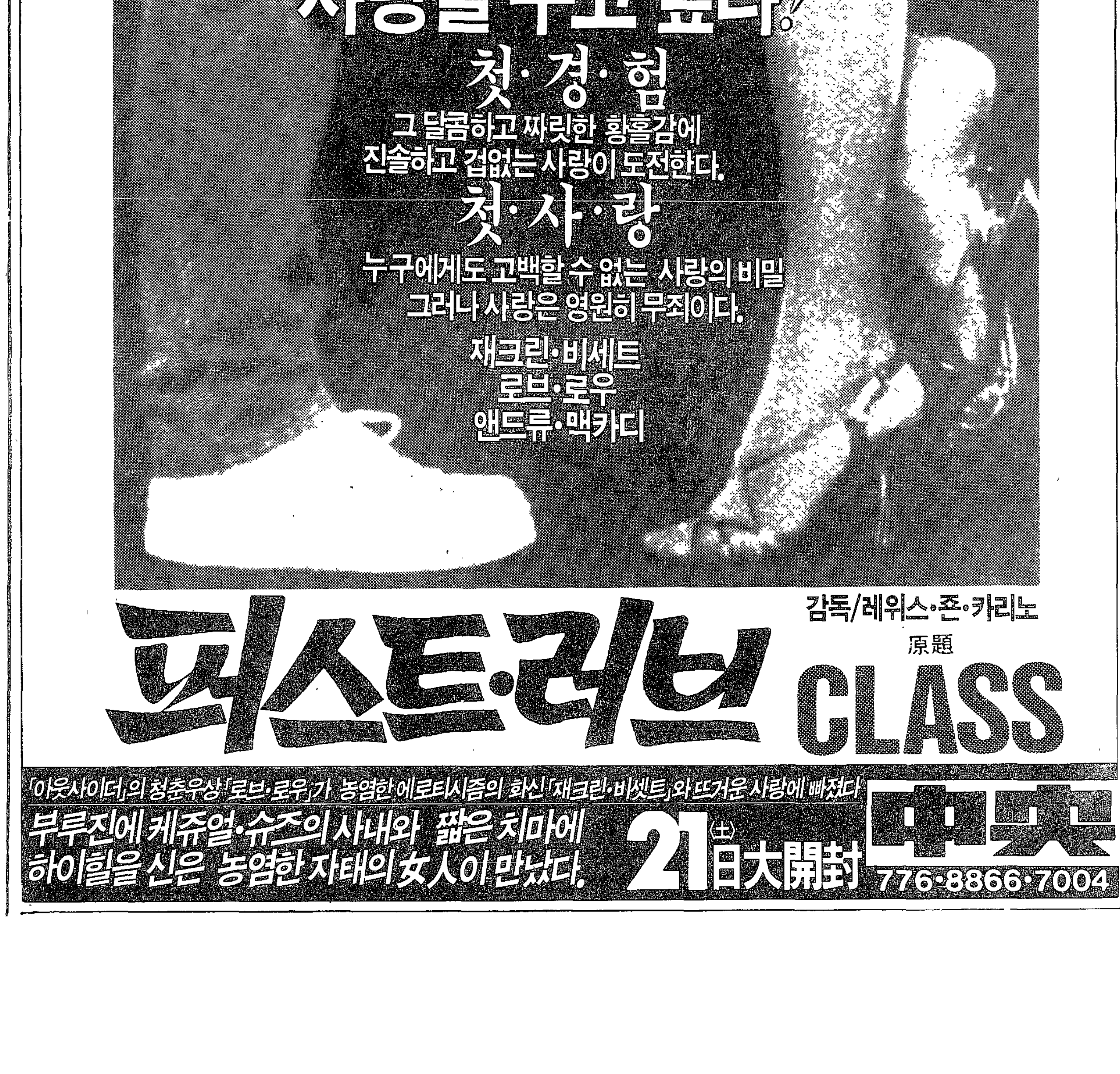
둘째, 미국이란는 제국주의 세력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확대, 심화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제3세계 국가에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정권은 반민족적, 반민중적임을 깨닫게 했고 이후 반미자주화운동의 단초를 형성했다.

세째, 민중의 승리는 계엄군이 광주시외곽으로 철수한 당시 22~26일까지 민중에 의한 자치의 실현이다. 평소에는 그토록 심했던 절도, 강도, 폭력등이 군과 경찰이 철수한뒤 오히려 거의 사라져 버렸으며 시민모두가 광주를 살리고 건설하는데 합심, 협력했던 것이다.

네째, 그러나 2천여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은 막을 내렸지만 이 항쟁이 80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군부독재타도와 민족해방의 길을 여는데 있어 중요한 경험적 성과들이 될 것이다.

이제 5·18광주민중항쟁은 현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땅의 자주화·민족통일·군부독재타도를 위해 산화해간 2천여 광주 민주 영령들의 뜻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송 연 택
〈대불련간사〉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Level로 구성된 12명정원제
- 엄격한 학사관리
- TESL(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 담당

Placement Test매월 20일 부터 (1시, 2시, 3시) 3회

I CAN DO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구내우체국 이용안내

◇온라인 전자종합통장
전국 최대의 온라인망을 갖고있어 전국 어디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납부
○송금시 15자이내의 통신문 송달가능

◇자유저축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높은 금리가 보장됩니다
○적용이율 : 3개월미만 : 연6%, 3~6개월 : 연9%, 6개월이상 : 연12%

◇세금·공과금 수납
국세, 지방세(주민세및, 동차세, 재산세)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방범비등

◇특산품 주문판매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싼값으로 전국 어느곳에나 직접 배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울릉도오징어, 완도김, 순창고추장등

◇민원우편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및 제증명서류등을 해당기관에 직접 가지않고 우편을 통하여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 졸업증명등
※문의전화 : 273—1005, 273—6507

동국대학교우체국

문화時評

"광주여, 이 시대의 아픈 죽음이여" — 오월과 오월문학

『순천교도소 눈부시게 하얀/반역의 벽돌집을 지나며/정작 저 속에 갇혀야 할 사람은/따로 있음을 안다…그날의 불꽃처럼 다시 한번 타올라야 함도 안다/가시철망이 하늘을 찌르는/순천교도소 지나 5월 살륙의 거리/해방의 거리, 광주가는 길에』(박상수,「광주가는 길에」中)

1980년 5월이 우리 문학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실로 지대하다. 5월항쟁이 70년대 민족운동을 총결산하면서 새롭게 80년대 운동을 출발시켰듯이, 문학에 있어서도 전시대 지식인 중심의 민족문학에서 노동자등 민중계급이 주도하는 민중적 민족문학을 태동시킨 것이다.

5월을 체험했건, 체험하지 않았건 간에 이 시대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문인이라면 한번쯤 그의 작품 속에 5월을 언급해보지 않은 문인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광주」가 어떻게 싸워왔으며 수없이 죽어간 열사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결단을 재촉하는지를, 그리고「광주」가 어떤 형체로 남아 계속되는지를 노래한다. 아울러 반동과 폭력의 시대에 文人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다.

5월을 처음 문학 속에 수용시킨 장르는 詩였다. 5월을 계기로 성립된 박몽구등의「5月詩」同人이나「반시」동인,「삶의 문학」동인등 많은 시인들이 지금까지 5월을 노래하고 형상화시켰다.

김준태는 그의 詩「아아 광주여！우리나라의 십자가여！」에서『아아, 우리들의 도시/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만 뒤집어쓸망정/아아 광주여 광주여/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아아 온 몸에 상처뿐인/죽음뿐인 하느님의 아들이여』라고 광주를 노래하고 있으며 김정환은「오월哭」이라는 작품을통해『우리는 선채로 쓰러지며/조선땅에 뿌리를 내릴수밖에 없읍니다/우리는 두팔 두귀 짤리며 진달래밭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읍니다/우리는 죽어도 죽어도 이땅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읍니다/식민지 심장에 오월 피발에 수치스런 역사에 원한과 고통에/아아 해방을 위한 싸움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읍니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또한 이영진은『그대들이 흘린 피가 스며든/젖은 땅 위에 서면/발부리를 따라 전신으로 치밀어 오르는/그대들의 분노와 슬픔으로/온 몸이 뜨겁게 타오를 뿐, 타는 가슴일 뿐/오직칼의 빛은 칼로 갚을 뿐…』이라며「단 한 줄의 詩도 씁수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승철도『가자, 민주의 나라 오월인 것을/가자, 민중의 결단오월인것을/가자, 민족의 꽃 오월인 것을/가자/우리네 목숨의 고향 망월동 들녘인것을…』이라고「오월노래」를 부른다. 이 외에도『무수히 새로 거듭 태어나는 광주여』(「광주」)라고 노래하는 조태일,『아아, 광주여, 이 시대의 아픈 죽음이여 너의 이름을 불러보면 벌써 목이 메인다』(「頌歌」)의 문병란,『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민중들을 계획적으로 학살하는 아메리카여！』(「학살1」)의 김남주, 그리고「무등」의 황지우,「십자가의꿈」의 박몽구,「이제 다 알아요」의 양성우,「40년」의 고은,「다시 오월에」의 김형근등 5월광주를 노래한 시인들은 많다.

"反외세 反독재와 同軌에서 5월광주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발판으로"

이러한 5월시들을 묶어 출간된「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인동刊)를 보면 5월의 의미, 5월항쟁의 모습, 민족현실등에 관해 가슴절절한 시편들이 정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5월詩들은 주관적인 감상에 빠져서, 5월 그 쟁쟁한 역사의 생기를 재연시키고 극복의 의지로 승화시키기 보다는 단지 5월항쟁을 의례적으로 상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소설부문에서는 5월의 문학적 수용이 다소 부진하다. 임철우의「사산하는 여름」이나 윤정모의「밤길」등 몇편의 단편들에서 겨우 다뤄지고 있고 그간의 광주항쟁소설들로 묶여진 소설집「일어서는 땅」이 그나마의 문학적 성과로 보여지는데「일어서는 땅」은 오월당시 실종된 아들을 찾는「일어서는땅」, 여교사의 눈을 통해 광주상황을 묘사한「다시 그 거리에 서면」「망명의 끝」「당신들 몬도가네」등의 단편들을 싣고있다. 이러한 소설은 아직 추상성에만 머무르고 있어 좀더 치열한 동기와 인식이 요구된다하겠다.

민중이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문학 內에서 해방의 미학을 표출해야

광주를 다루는 르뽀·고발등의 문학작품도 서서히 가열되어가고 있다. 효시格이라 할 수 있는 황석영의「어둠을 넘어 시대의 죽음을 넘어」는 그 내용이 감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금기시되어 있는「광주」의 봇물을 터뜨렸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근래에 이금희, 김현채, 이세영, 김태헌씨등의 증언과 북미 인권동맹의 광주사태 보고서인「5·18광주민중항쟁증언록」, 광주사태의 가해당사자인 특전사 부대원의 양심고백서「작전명령—화려한 휴가」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5월을 現在化시키고 그 이념과 전망을 다수 대중에게 선전해낸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오월광주의 문학적 수용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화된 의지는 실천의지로서 삶속에 자리매김 시켜야한다.

아울러 오월이 이땅 광주를 지역적 문제에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反외세, 反독재와 동궤에서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해방의 미학을 표출할 수 있어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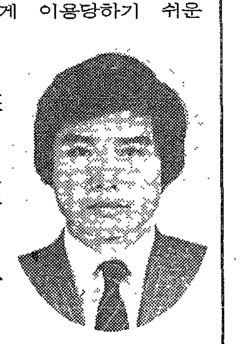
민중이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문학의 생산속에서 오월문학도 그 위치를 확보해 나가야 하며 아직까지 벗어나지못한 현상적, 감상적인 표피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결국 투쟁에 몸담은 자만이 올바른 문학을 담보해낼 수 있다』는 말을 한번쯤 되새겨 볼 일이다.

『광주여/이 시대의 불구자여/아버지와 아들의 제삿날이 같은 날/우리들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남 정 령 <本社 文化部長>

그대들의 귓가에
속삭이리라
그날의 함성 물밀어 가던
금남로에서 광남로에서
나는 불멸의 연가를
부르리라
광주는 죽지 않는다
광주는 영원히죽지않는다고…

파리와 적토마



李 正 一 <자연대교수·생태학>

우리는 파리를 싫어한다. 무조건 다 나쁜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불결하고 귀찮은 존재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종 파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곤한다.

어쩔수없다해도 현명치못한 처사임에는 틀림없다.

어느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어느날 파리가 적토마에게 도전장을 보내왔다. 적토마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만 비겁함을 모르는 천성때문에 도전을 피하는 것도 수치라고 생각하게되었다. 결국 시합은 이루어졌다. 출발하는 순간 적토마는 습관적인 준비자세로서 꼬리를 힘차게 들어올렸다.

파리는 이때를 놓칠세라 재빨리 적토마의 항문에 찰싹 붙었다. 그곳은 평소에 파리가 좋아하는 환경이고, 즐거운 식사를 제공해주는 장소였다. 적토마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렸고, 파리는 먹으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순간 배가 부르도록 먹고난 파리는「왱」！하고 잽싸게 귓가를 스치면서 적토마가 보고있는 코끝에 살짝 앉아 끝인하게되었다. 승패가 눈깜짝할사이에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승자인 파리는 얍체와 기회주의를 대표하는 약삭빠른자 (지혜로운자？)로, 그리고 패자인 적토마는 힘과 용맹성만을 믿고 있는 우둔한자 (지혜롭지못한자？)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후 우리는 약삭빠른자가 싫어지게 되었고, 힘만 앞세우는 자는 약삭빠른자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나 현명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맹목적인 삶이야말로 마치 용맹함을 자랑하는 적토마가 보잘것 없는 시합에서 질 수 밖에 없었던 무의미한 달리기와도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진정한 우리의 삶도 파리와 같은 약삭빠른자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다.

東岳路

"대학의 민주화는 불신감 해소부터"

지난 11일 동국관에서는 법과대학생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가 열렸다.

이들은 올해부터 법정대학에서 법과대가 따로 분리됨에 따라「법과대학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내용은 법과대의 졸업학점을 현재 140학점에서 160학점으로 조정해 줄것과, 법과대만의 열람실 확보, 무능교수 퇴진 요구등 법과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들이었다.

학생들에 의하면 타대학에서는 커리큘럼상에서 학점보다도 몇시간의 수업을 더 확보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점보다 더 많은 강의를 듣게 돼있는것에 반해, 현재 본교에서는 한시간당 1학점만을 인정하고 그나마 타교에 비해 10～20학점을 적게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손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커리큘럼조정문제는 지난해에도 학교측과 한차례 마찰을 빚었었고, 학교당국은 88학년도부터 이를 조정,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로 약속한 바있다.

그러나 금년들어서도 커리큘럼상에 아무변화가없을 뿐만아니라 학교측은 지난번의 약속을 부인함으로써 법과대생들은 지난 9일 전면 수업거부에 이어 본관 세미나실을 점거·철야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또다시 학교측은 커리큘럼조정요구를 수락함으로써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우리들의 요구가 확실히 지켜질런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는 한 학생의 말에서「약속이 곧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어느정도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교육기관인 학교와 학생,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서 생기는 모든관계에 믿음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은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공감하는 바이다. 하물며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학교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님을 생각해볼때 동악내에서 상호 불신감이 완전히 청산되는 날은 언제쯤일런지 못내 아쉽기만하다. <김경애記者>

우리땅은 우리손으로 — 춘계 농활을 다녀와서

투고함

『농민에게 농토를, 아니면 죽음을』2일간의 사전교육으로 평택지역의 사정을 피상적으로나마 접하고, 13일 오전11시 고려대에서 1차 농활대의 활동 보고및 2차 농활대의 발대식을 마치고 활동현장으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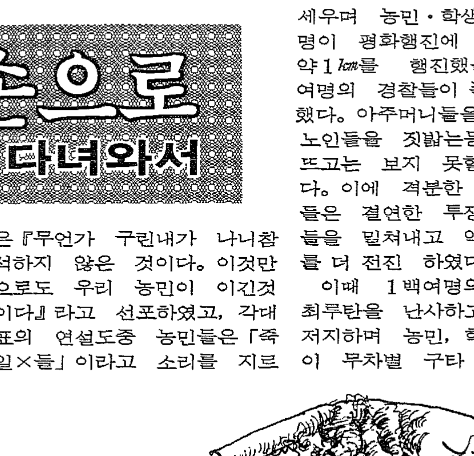
오후3시에 평택역에 도착한 활동대는 평택역 부근에서 약30분간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하고, 4시에는 신대리 소재 평택교회에서 농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짐을 풀었다.

『평택교회와 이곳 관리소는 평택 농민들이 오랜동안 점거 농성을 하고 있으며 교회건물은 교인이 하나도 없고 소작지를 감시하기 위한 세종대학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전망대이다』라는 말과 그곳 사정을 농민 대표로부터 듣고 우리는 농민들이 18년간 만들었다는 방파제를 둘러본후 근로작업을 하고 숙소로 돌아 왔다. 이후 야간활동으로 강연회와 호별 방문을 하고 하루일과를 각조별로 평가한 후 취침에 들어갔다.

새벽 3시, 불시에 재단측에서 모내기한 (농민이) 논을 습격할지 모른다고하여 야간 순찰을 돌았다. (모내기한 논을 야간을 이용해 재단측에서 망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14일6시30분에 기상하여 근로작업을 마치고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인 평성읍사무소에서의 공청회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평성읍에 도착, 경운기와 트랙터를 앞세우고 농민들과 학생들이 하나되어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가두 홍보전을 펴며 공청회 장소에 도착하였다.

공청회의 명칭은「평택토지 반환에 대한 각측의 입장」으로 초청했던 군수, 재단측 경찰서장, 민정당, 민주당측이 불참함으로서 농민대표, 학생대표, 평민대표만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들 대표들은『무언가 구린내가 나니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농민이 이긴것이다』라고 선포하였고, 각대표의 연설도중 농민들은「죽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나 구호를 외칠때는 큰소리로 따라 했다. 공청회 이후 숙소로 돌아와서 평가회를 갖고 흥겨운 농악과 어우러진 농민, 학생간의 만남을 갖고 농민 지도부의 이후 투쟁 방향성과, 15일 결의대회를 다짐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15일 오전에 근로작업을 마치고「농촌활동 평가및 악덕지주 처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운기와 트랙터를 앞세우며 농민·학생 3백50여명이 평화행진에 들어갔다. 약1㎞를 행진했을때 5백여명의 경찰들이 폭력 저지를 했다. 아주머니들을 구타하고 노인들을 짓밟는등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광경이었다. 이에 격분한 농민·학생들은 결연한 투쟁의지로 이들을 밀쳐내고 약 1㎞정도를 더 전진 하였다.

이때 1백여명의 백골단이 최루탄을 난사하고 몽둥이로 저지하며 농민, 학생할것 없이 무차별 구타 연행 하였다.

토지반환투쟁은 핍박받아온 농민들의「새세상」향한 의지의 표현

(이 폭력사태로 말미암아 15명의 농민·학생들이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농민실신자 3명, 본교 여학생은 다리가 부러져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등 치를 떨게하는 폭력이 난무하였다.) 아주머니들의 처절한 절규, 노인들의『한번 죽지, 두번죽냐』『나를 죽여라』라며 백골단 깡패들에게 달려드는모습은우리나약한 학생들의눈시울을적셨다.

이후 약 두시간의 대치시간중 협상이 오갔고, 우리는 평성읍사무소로 들어가 악덕지주 주영하, 최옥자 화형식 및 평화 집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경찰측의 공개사과및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읍사무소에서는 농민·학생 1백50여명이 농성을 갖는 한편, 사태가 악화될시 언제든지 다시 농민과 연대하여 싸운다는 다짐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평택지역의 토지반환 투쟁은 6.25당시 피난민들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54년 부터 간척 사업에 착수, 약19년간을 목숨을 빼앗기며 피와 땀을 흘려 방파제를 축조하자, 세종대학재단이 자기재단의 땅이라고 하며 토지인도 소송을 법원에 제출, 1968년 재단측이 승리 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1983년 명백하게 그곳이 국유지임을 입증하는 사진등 자료를 제출, 국가가 원고가되어재판에임했으나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곳은 지난 68년부터 현재까지 3：7제의 소작료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87년 6월 투쟁을 겪으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87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지속적인 농성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제 농민들은 알고 있다. 농민들이 단결하였을 때에만 빼앗긴 토지는 반환될 것이고, 재단측만의 횡포가 아닌 사법부와 행정당국이 결탁하여 농민들을 못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도 안다.

농민들의 흙묻은 손,『도둑×들』이라며 눈물과 주먹을 부르르 떠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갈라진 손에 몽둥이 세례를 하는 자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집단을 몰아내고 농민들의「새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농민 한 분의 울음섞인 절규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30년동안 핍박 받아온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 땅은 누가 뭐래도 우리 손으로 꼭 찾는다. 사회의 진실, 정의가 있는한 어떠한 탄압, 악전고투, 어려움이 있어도 꼭 우리 손으로 찾고야 말겠다』

그렇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한다.

『주영하 최옥자는 토지를 즉각 반환하라』

『악덕지주 비호하는 행정당국 자폭하라』

『평택 농민 토지반환투쟁 만세！』

조 천 현 <농과대 농업경제학과>

광주민중항쟁 계승·실천주간및 목멱대동제 행사일정

날짜	행사
16일	12시 불교도 주간 선포식 및 민주영령 천도제 (불상앞) 1시 광주민중항쟁 8주기 계승·실천 투쟁 선포식 및 문화제 -총학생회- (도서관앞) 3시 광주민중항쟁 현장증언 -총학생회- (도서관앞) 4시 만해 강연회 -법사단- (교수 세미나실) 7시30분 춘극공연 -보살사상 연구회- (불상앞) 9시 점등식(탑돌이) -불교학생회- (불상앞)
17일	7：30～8.00 -광주 참배 출정식- 광주항쟁열사 망월동묘지 참배 —총학생회—
18일	12시 광주영령 추모제 및 위령비 제막식 -총학생회- (도서관앞) 1시 민주열사 장례식 (전통의식 재현) -사우회- ('[illegible]') 2시30분 목멱대동제 개막식 -기획분과- (도서관앞) 3시30분 백기완 선생 통일 강연회 -이과대- (도서관앞) 5시 광주민중항쟁 상황마당극 -민속극연구회- (불상앞) 7시30분 실천대회
19일	12시 단대 연합 한마당 -기획분과- (도서관앞) 민주포졸 발대식 -특별분과- (도서관앞) 진군！동서남북 (불상앞) 요가 강연회 인철과 (교수 세미나실) 자연과학 실천지침 자연과학 연구회 모의 통일연석회담 -민족사연구회 사학과- (도서관앞) 용역원위안잔치 대총 교직원식당 팔씨름·널뛰기 예선 -체육분과- (민중장터) 동국인 웅변대회 -공과대- (도서관앞) 수계법회 불교학생회 정각원 시낭송회 (학생소극장) 동국문화회 춘극 경연대회 -문화분과- (도서관앞) 동국예술인의 밤 -예술대- (체육관) 조정래의 문학이야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민주동문회 노동자·학생 한마당 -기획분과-
20일	12시 모의 대통령 선거 -사과대- (도서관앞) 심포지움 - 세계관으로서 변혁적 철학 -철학과- (대학원 세미나실) Sing-Out MRA (중강당) 민중백일장 -새언- 학생회관앞 농학연대 강연회 -농과대- (도서관앞) 심포지움 - 3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전개과정 -문과대- (학림관 소강당) 목멱씨름 예선전 -체육분과- (민중장터) 초청강연회 지선스님 -불교대- (중강당) 통일노래 한마당 -도서관앞- (중강당) 정지용 문학의밤 -국어교육학과- (학림관 소강당) 동악의 밤 야간강좌 (체육관) 노래극 -아리랑- (중강당)
21일	12시 모의 대통령 선거 -사과대- (도서관앞) 각종 민속경기 결선전 -체육분과- (민중장터) 남북통일 전통혼례식 -문화재연구회- (불상앞) 약학인의 밤 RCY (학생세미나실) 단대연합 총진군 -기획분과- (대운동장) 연꽃제 ROTC 체육관 대동제 -문화분과- (대운동장) 폐막제 -기획분과- 제등행렬 불교도연합

▲북한여성사진전：19～20일 다향관앞 (여성분과) ▲성고문사진전：1～21일, 다향관앞 (여성분과) ▲구로·6. 10비디오상영및 전시회：17～19일 (야간강좌) ▲열사사진전：18～21일 (이과대) ▲세계풍물화보전시회：19～21일, 학생세미나실 (UNSA) ▲증권전시회：19～22일, 도서관앞 (한국상경학회) ▲동대인 의식조사：18～21일, 다향관앞 (통계조사연구회) ▲핵！핵！핵！：19～20일, E402 (현대과학연구회)▲Shakespear작품 전시회：19～21일, 도서관앞 (이부대 영문과) ▲Cover전시회：19～21일, 코끼리상밑 (영어연구회) ▲축제사진전：18～20일, 학생회관 (동그라미) ▲불교용품전시회：16～21일, 본관앞 (선학과) ▲평우회 사진전시회：19～21일, 다향관앞 (평우회) ▲민중미술 색칠하기：19～21일, 다향관·명진관앞 (이과대 여학생회)▲연극제：18～21일, 스튜디오 (연영과) ▲민족영화제：19～21일, L101 (연영과) ▲민중장터：19～21일, 공대운동장 (농어촌연구부) ▲제2회 총장배 바둑대축제：19～21일, 동국관5층 로비 (기우회) ▲구속자를 위한 일일찻집：19일, 다향관 (생활속의 철학) ▲전통문화와 현대문학：19～21일, 명진관1층 (물리학과) ▲전자전시회：19일 (전자공학과) ▲컴퓨터그래픽：19～21일 (컴퓨터연구회) ▲판화전시회：19～21일, 불상앞 (폭심) ▲장비전시회：(무선통신연구회) ▲속보전시회：19～21일, 학생회관앞 (동그라미) ▲동대미전：18일～6월1일, 혜화관 2층 (미술과)

동악広場

게시판

양심의 손길을

본교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오전11시～오후6시) 양심수 석방과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본관앞에서갖는다.

DUBS방송제

본교 교육방송국에서는 오는 19일 오후5시 중강당에서 개교82주년기념및 개국29주년 기념행사로 제12회 D·U·B·S방송제를 개최한다.

신입생 백일장

인문과학대가 후원하고 국문과가 주최하는 신입생 백일장이 오는 24일 오후1시 반월성에서 전1학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시상은 시부와 수필부 통합 장원1명, 각부문 장원 1명 가작 2명에게 주어진다.

「예술인의 밤」참가모집

예술대학생회는 88동국제의 일환으로 오는19일 오후6시 체육관에서 실시되는「예술인의 밤」에 참가할 재학생팀의 신청접수를 미술학과학생회실에서 18일까지받는다.

경인지구 체육대회

경인지구 국민윤리연합회(동대·서울대·성신여대·인천대)에서는 친목과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고자 오는 22일 오전9시30분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4회 체육대회를 가진다. 국민윤리과 학형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이디어 전시회

공과대학생회에서는 산업기술연구소후원으로 중고등학생 과학아이디어작품전시회를 오는24일부터 30일까지 도서관 특설전시장에서 개최한다.

목멱제백일장

3천써클인의벗 제4대써클연합회에서는 써클인과 동악인을 대상으로 오는20일오후 학생회관앞에서 대동목멱제백일장을 실시한다. (제목은 당일발표)

써클활동

총장배바둑대회

동국기우회에서는 오는19·20일 양일간 동국관로비에서 전동국인을 대상으로 제2회 총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한다. (A조：3급이상, B조：4～7급, C조：8급이하, 쌍쌍오목대회도 동시에 개최하니 많은 참석바람)

응원단원 모집

백상응원단에서는 액션남녀 약간명과 보컬, Singer, Drums, Guitar Ⅰ·Ⅱ부분의 12기생을 오는19일까지 회생회관6층 응원단실에서 모집한다.

사찰 촬영 대회

영상 사진 연구회에서는 석가탄신일을 기념해서 오는 23일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효성여대의 사진써클들과 함께 경주 일원 사찰 촬영 대회를 갖는다.

동그라미 사진전

동그라미 사진연구회에서는 오는 18～20일 3일간 학생회관 3층 상설전시장에서 제19회 동그라미사진전을 갖는다.

科·동정

정지용 문학의밤

국어교육과 학생회에서는 오는 20일 오후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권영민 서울대 교수를 초청, 정지용의 문학세계에 대해 강연회를 갖고, 시낭송회도 갖는다.

「6人展」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재학생 6명의 작품전인 제2회「6인전」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원효관 미술과 전시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되고있다.

지교과 전시회

지리교육학과주최 제7회 학술사진 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지교과 제도실에서 열린다.

국문과 전시회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문과대학생회와 총학생회 후원으로 불상앞에서 탁본 전시회를 갖는다.

동문알림

서울工동문회

서울공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18일 5시28분에 친목도모를 위해 도서관앞에서 모임을 갖는다.

경기동문회

경기고동문회에서는 오는 29일 오전10시에 경기·경복동문회체육대회를 경기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가짐. 회비는±α。

양정·배재정기전

배재동문회주최 양정·배재 정기전이 오는 23일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열린다.

경주 壬石한마당

取材落穗

대동단결의 場으로는 미흡

시국풍자웅변대회등 행사"다채"

참여부족으로 空洞化 현상 심화

캠퍼스 설립10주년 기념 「경주캠퍼스 전진10년 壬石한마당」이 지난11일 「취업특강」을 필두로 막을 열어 14일의 「백상연」까지 4일간에 걸쳐 모든 행사를 치뤘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란는 기치아래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해의 「壬石대제전」의 모순에서 탈피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캠퍼스 설립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壬石한마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학생대중의 참여와 진정한 「대학축제」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마당의 장을 열었으나, 홍보부족, 행사부산, 여성의 상품화, 학생대중의 인식부족에서 나타난 참여부족등으로 인한 민족혼과 젊음의 혼을 찾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대동단결과 민주실천의 장으로서 한마당 축제가 되기에는 부족함과 아쉬운점이 남는 행사였다.

더우기 이번 축제에서 지적되어야될 점은 각 단과대의 행사및 홍보부족과 덩달아 학과차원의 행사도 미진했던 점이다. 또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라 「알차고 내용있는 행사가 부족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고, 각학과및 써클, 동문회의 교내시장화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술렁이는 대학 축제로 그 의미를 손상했던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더우기 법학과와 관광경영학과의 학내시위가 있었는가 하면, 「주점따로 행사따로」식의 분열된 분위기는 뭔가 아쉬움을 남게 하는 대목이다.

첫행사로 열린 법경대학생회 주관 「동문기업인 초청 취업특강」은 홍보부족, 자료미비로 극소수의 학생만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상실했다. 전야제인 터짐마당 개막식도 학생대다수의 참여부족으로 40여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꽃놀이등은 학생대중을 하나되게한 의미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의시국 풍자웅변대회」는 현 굴절된 시대상황을 풍자, 학생대중들에게 알리려는 취지로써 참가학생 준비미비의 문제가 없지않았으나 비교적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을샘주관 「개사곡경연대회」및 동국문화회주관 「시낭송회」는 아무런 발표와 대의명분을 내세우지 못하고 무산되어 학생들의 빈축을 샀으며 KUSA주관 허슬 발표회는 참여부족으로 행사가 중단,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화랑선무부주관 연무시범은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우리무술로 체력증진과 기량을 보여 학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의과대학생회주관으로 현대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현실에 맞서 싸우는 일치된 힘을 나타내는 「민주투사5종경기」는 「하나됨」을 심어주었으며, 민족통일장사씨름대회 또한 전통을 바탕으로 대동단결의 장을 만들었다.

本校 재학생 장찬(국문4)君과 여러학생들의 축복을 받으며 문무관에서 「전통혼례식」을 가졌으나 실내행사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함께 어우러지고 여학생들의 놀이마당으로 열린 「연홍제」는 참여한 대중을 하나로 엮기위해 3부로 마련했으나 역시 무산되어 예년의 성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수학교육학회주관 「수학경시대회및 초청강연회」는 거의 학회행사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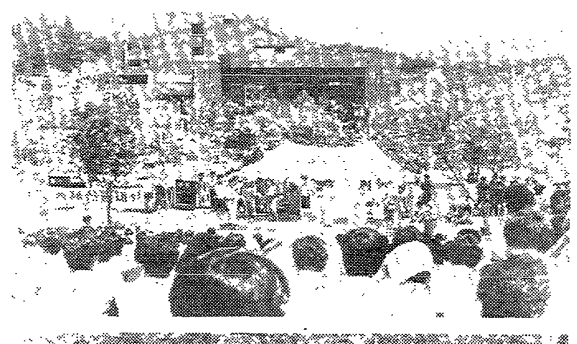
고전극연구회주관 「통영오광대」는 고전극을 통한 현실비판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다. 한편 녹야원에서 열린 「민주나라 독재돼지 만세」는 독재자를 학의 모습을 풍자해주어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었으나 5·18광주항쟁회생자및 현대엔진 노조위원장 부친 초청강연회때 참석인원의 대다수가 빠져나가 의미성을 상실했다.

「미스독재 선발대회」는 학생대중이 많이 참여한것으로 독재자들의 부인을 풍자, 함께할수 있는 장으로 이끌려는 본의도를 상실, 출연자의 지나친 노출, 행동및 사회자의 자질등 여성의 성상품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날에는 서울캠퍼스 아리랑초청공연회를 가졌는데 민중노래를 같이 부름으로 양캠퍼스간의 동질감을 느끼게해 높이 평가되었다. 이어, 「민주쟁취 차전놀이」는 동문과 선군으로 나누어 「하나됨」을 느끼게 했고, 각종전시회는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소수들만의 참관을 보였다. 만화·판화 풍자전및 광주항쟁 비디오상영등은 많은 참관속에 학생대중에게 그당시 상황과 참상을 바로 보게해 주었으며 마지막행사인 「백상연」은 서울캠퍼스총학생회장및 응원단 시범공연·용역인부 초대등에서 의미는 가지나 분위기의 산만성, 만국기·소품등의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한마당행사를 보면서 주최측의 홍보부족, 무성의한 행사주관, 시간지연등도 문제이겠지만 학생대다수의 대학축제 본의미상실과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예년에 비해 서울캠퍼스의 아리랑, 응원단 초청등으로 양캠퍼스간의 「한마당의 잔」을 마련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상업화캠퍼스의 주점확장(?)및 학회·써클차원의 행사부족, 유흥후 기물파손등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들이다.

대학文化를 올바르게 육성 발전시켜야할 지성인으로 전체대중이 하나가되어 지역적 고립성을 탈피하고 서로가 「하나됨」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참여의 대학축제로 이끌어 진정한 민족·민중해방·통일의 그날까지 시대에 어깨걸고 다같이 어우러지는 마당으로 계승발전시켜야함이 과제로 남고있다.



〈류춘률記者〉

"문제의식 공유로 현안풀어야"

「동국발전추진위원회」분과委 활동 활발

동국발전추진위원회 건설준비위원회가 분과별로 활발히 활동을 벌이고있다.

학생복지분과의 경우는 학생·교직원식당의 재계약실태 공개, 자판기·복사기의 완전 직영화및 확대,재배치와 신설, 샤워장의 시설보수, 용역회사의 직영화, 학교버스 증차, 야간대 행정창구 신설, 단과대 도서관의 시설보수에 관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학생·교직원식당의 재계약에 있어 학교당국과 업자의 발언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학교행정의 불철저성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교내식당중 7개를 경영하고 있는 업자는 법정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설공간재배치분과는 만해광장, 재향군인회 장·단기 활용계획에 대한 공개, 단대별 시설재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해광장의 경우 동우탑밑의 테니스코트와 농구장을 없애는데 대해 학교측이 「기득권을 갖고있는 공과대와 테니스학생회와의 이해상충 이후」란는 전제에 대해 동발추진분위에서는 방음벽 설치와 재향군인회관내 테니스코트 활용안을 내놓아 학생들간의 협의는 마무리 과정이다.

단대별 시설재배치에 있어 명진관을 문과대, 이과대가 같이 사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불편과 불교대의 본관사용으로 시설이용의 상대적 감소에 관해 학교측과 계속 논의중이다.

학칙개정분과는 학생2인, 학교측2인, 학생추천2인으로 구성되는 학칙개정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학사행정에 있어 학사일정계획발전등의 계획수립시 학생대표 참여부분과 학교, 학생대표 연석회의의 공식화, 공개화를 주장하고있다.

교수채용의 기준과 과정공개를 주요골자로 삼고있는 교수분과는 가시화된 어용·비리교수의 해결방안과 평교수협의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요구하지만 학교측의 답변회피로 논의가 안되고 있다.

교수분과와 아울러 대의원총회에서 담당하는 예산감찰분과는 장학금 내역 공개에서 예리하게 마찰을겪고 있는데 「전임자에 대한 예우」란는 표현으로 함구 의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가고 있다.

대외사업및 재단분과는 기초자료의 조사에서부터 암초에 부딪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종단이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일의 진척이 더디고 있다.

이와같이 학내에 잔존하는 비민주적·비합리적 요소의 척결을 기치로 동발추진분위는 각 분과별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도 대처방안 구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공히 인정하고 있다.

〈김 일記者〉

카메라 덧상

온건한 우리들을 치열한 투사로 만드는 時代。 우리의 외침 들어주는 이 없어 차마 다 감지못한 눈, 어이할꺼나。 돌아오라, 동지여。 아픔의 허물을 벗고 새 세상으로。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글=남정령·사진=지희현記者>

총동창회 정기 이사회

지난16일 국회의원 당선축하연겸해

총동창회(회장=鄭在哲)주최 「제50차 정기이사회겸 13대 국회의원당선자및 동국을 빛낸 동문축하연」이 지난16일 오후7시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었다.

李智冠총장, 黃珍經재단이사장과 국회의원당선동문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鄭在哲회장은 『7만 동국인의 보금자리가 될 동창회관 건립모금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올가을부터 회관건립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도 더욱 넓혀가겠다』라며 올해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13대 국회의원당선자및 동국을 빛낸 동문축하연」 순서에는 黃明秀(53·정치), 金東英(60·정치), 愼順範(61·정치), 金榮龜(62·경제), 崔炯佑(63·정치)동문등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동문과 黃珍經재단이사장등 동국을 빛낸 동문 10명에 대한 축하패 수여가 있었다.

총장기 고교농구 盛了

배재·인성 남·여부 각각 우승

개교 82주년기념 「제14회 동국대학교총장기쟁탈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가 배재고와 인성여고가 각각 남녀부 패권을 차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지난1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폐막된 결승전에서 여고부의 인성여고는 이번 대회 최우수여자선수상을 받은 유영주양등 선수전원의 고른활약으로 덕성여고를 81대80, 한점차로 힘겹게 따돌리고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또한 남고부의 배재고는 재학생들의 열띤 응원아래 상대팀인 부산중앙고에게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66대57로 승리, 남고부 패자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진원(배재), 유영주(인성여) ▲우수상=오성식(부산중앙), 정영주(덕성여) ▲미기상=문경은(광신商), 이경신(성일여) ▲장려상=박치용(양정), 이병율(대전), 위미경(신광여), 김정애(의성여) ▲지도상=강진구(배재), 심욱규(인성여)

한의과대 수업거부

"韓方보사행정 시정"촉구

한의과大대는 지난11일부터 정부당국에게 보사부의 공중보건법 시행, 국공립한방병원및 한방연구소 설립, 맹인안마사와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법 제정등 6개항을 요구하며전면 수업거부에 입했다.

이번 수업거부는 정부당국의 한방정책에 대한 불합리성과 기만성 타파를 위한 것으로 학업결손 방지의 의미에서 학년별 프로그램을 마련, 특강·토론회 개최, 연구회 조직및 활동들을 벌여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서건추 本校지부

지난12일 발대식

학원의 민주화 실천과 민중의 민주주의및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서울지역대학생 총연합 건설추진위원회(이하서건추) 本校지부발대식」이 지난12일정오 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부총학생회장인 이호영(국문4)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李군은 『민족운동 진영과의 굳건한 연대, 지원투쟁을 통일적,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학생연합 조직으로서 서건추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의 발족선언문을 낭독했다.

회전무대

빛고을은 되살아나고 있다…우리의 심장을 강타하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학살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향해/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불의에 항거하여 정의의 주먹을 치켜든 시민을 향해/보아다오 파괴된 나의 도시를/보아다오 낮과 밤살난 나의 참을/보아다오 학살된 아이의 눈동자를/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집행인들/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언젠가 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김남주의 학살3中에서〉

자기의 죽음이 헛되게 끝나지는 않을것이라는 것을/그렇다, 그때 흘린 피 한방울은/어머니인 대지에 스며들어 언젠가/어느 날엔가는 자유의 나무는 결실을 맺게될 것이며/해방된 미래의 자식들은 그열매를 따먹으면서/그가흘린,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것이다. (김남주의 전사2중에서)

빛고을은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의 심장을 강타하면서……。

「君師父自由體」(?)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스승의 날」인 지난15일을 전후하여 東岳에서도 사범대등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려, 퇴색해가는 師弟之情을 다시 생각해보는 흐뭇한 자리가 되었는데…。

그러나 「군사부일체」라던 스승의 높고 종한 은혜가 먼옛날의 향수(?)나 유언비어(?)같은 것으로 전락한 오늘의 모습를 보며 허탈감도 없지않습니다요。

특히 바르고 옳은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드문, 또 시험보는 기술만을 배우는 학생상을 보며 오늘의 학원에서 진리와 정의를 구함은 「緣木求魚」와도 같아 더욱 씁쓸하고요。

각성하고 참교육을 위해 참스승과 참제자가 함께 설때 「참된 정의」또한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반영구적 홍보시대 (?)

○…옛말에 이르기를 「結者解之」라 하였으니, 자기가 저지른 일은 책임지고 스스로 해결하란는 뜻인즉, 요즈음 東岳에는 이를 잘 모르는 이가 적잖은 듯 해 자못 씁쓸。

그 한 예가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萬人이 통행하는 계단이나 도로, 심지어 벽에까지 울긋불긋한 스프레이로 도배를 해놓아 캠퍼스 곳곳이 팔불견이되어 어안이 벙벙한 것이 그것。

물론 세태가 해야할 말도、하고 싶은 말도 많은、이른바 「PR시대」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본디 「PR할것은 피하고 알릴것은 알리는」 것이 PR인즉、지우지도 못하는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반영구적인 홍보작전(?)일랑 펴는것은 우리모두가 共有하는 東岳을 위해서 삼가해주심이 어떨지?

축제가 강의라면 (?)

○…『螢雪之功』이 고사성어의 이야기가 아닌 온방골의 소식이라 本회전무대子 놀라고 기쁘고 씁쓸하기까지。

평소에 면학분위기가 구석구석에서 넘쳐흐르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마는 녹야원과 운동장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오고 주점에서의 「어서오십시오」라는 상냥한 인사를 받으며 강의실로 가는 학형의 뒷모습은 오직 「울고싶어라」의 기분이라는것。

주점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서도 도서관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것이 또 대학의 진정한면이지만 축제가운데서의 강의는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헤아려볼까 하네요。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너의 눈빛만 으로도 아름답다 -
지지 레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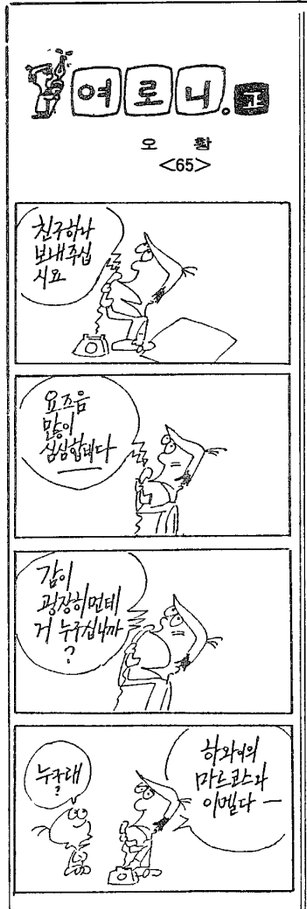
감각으로 전해온다.
너의 아름다움—
지지 레이디.
눈빛 만으로도 아름답다.
레이디 전용화장품—
지지 레이디.

숙녀전용화장품
지.지.레이디
'88서울올림픽 공식화장품

지지 레이디 3대 미용효과
● 피부보습유지 : 바이오 성분인 BIO-HE의 탁월한 보습효과로 피부에 촉촉함을 주며 피부자체 보습기능을 도와줍니다.
● 피부탄력유지 : 피부내 탄력섬유인 엘라스틴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유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가꿔줍니다.
● 생체바란스유지 : 각종 비타민 유도체의 상호 작용으로 수분·대사·호흡 등의 피부세포의 생체바란스를 지켜줍니다.

〈권장소비자가격〉
● 레몬 스킨바란서……110㎖·6,000원 ● 레몬 크린싱크림…………110g·6,000원 ● 네일칼라…………10㎖·3,000원 ● 브러쉬어…………3g×2·5,800원
● 레몬 모이스춰라이저……110㎖·6,000원 ● 레몬 모이스닝크림…………50g·6,000원 ● 칼라샤도우……1g×3·5,800원 ● 립사인…………3g·4,800원
● 레몬 리후레쉬토너……110㎖·6,000원 ● 립스틱…………3g·4,500원

아모레소비자상담실전화 : ● 서울(794)8080 ● 부산(462)8080 ● 대구(72)8080 ● 대전(624)8080 ● 광주(33)8080 ● 마산(44)8080



가자! 민중의시대로

이애주 著

새책안내

통일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이책은 백기완선생의발자취에서 민중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분명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민중의 지도자 백기완선생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는 과정부터 후보사퇴에 이르기까지 연설을 중심으로 엮어 민중이 자기본연의 주체성을찾아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도록 강조하고 있다. <민족통일刊·278面·3천2백원>

불타는 설원

오영주 譯

작가 레지스 드브레의 체험적 소설「불타는 설원」이 도서출판 한마당에서 간행되었다. 이밀라라는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엮어진 이 소설은 진정한 조국의 의미와 사랑을 여러 시각에서 비춰보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에 뛰어든 불란서 지식인의 투쟁과사랑이 심리묘사를 중심으로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한마당刊·230面·2천5백원>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편집부 編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서적, 논문자료들을 각 부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수록한「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녹진출판에서 간행되었다. 각 도서별로 기본도서와 참고도서로 분류하여 도서 선택과 독서의 효율성을 주고자 한 이 책은「새로운 인식의 확대를 위하여」등 총4부로 나뉘어져 있다.

<녹진刊·219面·2천원>

"역사적 상황인식과 체험공간"

—「우리시대의 소설」(정음사刊)

書評

우리는 T·아도르노의<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는 가능한가?>하는 발언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그의 자각이 오늘날 우리의 문학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40만 유태인 학살로 대표되는 20세기의 함몰된 인간성에 대한 비극적 현실인식이 문학의 의미망에 포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때 보다 증폭된 의미로 다가온다。

80년대 이후 우리 문학 내에 일관되고 구체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제재는 다음의 개략적인 요약을 가능하게 한다。

즉, ①분단현실의 극복문제, ②광주항쟁의 문제, ③지식인·학생, 노동자 계층의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 ④이른바 중산층·소시민 계층의 윤리와 인식의 문제 등이다。이 가운데 비록 중복되는 점들이 없지 않으나 각기 다른 내용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영역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이와같은 제 요소들은 소설에 있어서 사회현실의 폭넓은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인식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맺기도 한다。소위 <민중문학>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기반을 촉매시켰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한「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울림」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문학의 역할—곧 문학의 효용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정음사의「우리시대의 소설」시리즈 제1권우 그 기획 전6권 가운데 첫모습으로서 이른바 소장 비평가들이 주목한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서의 주요한 경향을 기준으로하여 분류·편집한 소설 모음집이다。제1권의 내용은 광주항쟁과 운동권 학생의 문제, 분단현실의 문제를 제재의 범주로 삼아 분류하고 있다。총12편의 중·단편을 수록한 이책의 공통점은 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계층들의 생생한 현장성과 감동, 치열한 내면의 갈등과 역사적 의미의 천착이 돋보인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먼저<깃발>(홍희담), <십오방 이야기>(정도상), <밤길>(윤정모), <볼날>(임철우) 등은 광주항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경우인데, 역사의 현장체험과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한 역할의 인식(<깃발>, <밤길>의경우)이나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기학대와 현실의 대비(<볼날>의 경우), 혹은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과 인간적 화해의 가능성 모색(<십오방 이야기>의 경우)을 그리고 있다。또다른 제재는 운동권 학생문제를 다루는 경우인데<친구는 멀리 갔어도>(정도상), <망명의 끝>(김남일), <배리>(김남일), <블륵거울>(임철우), <매운 바람 부는 날>(이혜숙), <반란>(심산), <소지>(이창동)의 작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가운데서도 운동권과 군대, 분단문제, 제도권의 고문의 위협과 왜곡에 항거하다 희생당하는 모습을 심도있게 보여주는<친구는 멀리 갔어도>는 특수한 체험을 서술하면서 은폐된 사회를 폭로하는 사실에 주력하여 짜임새있는 전개에 성공하고있다。또한<배리>는 노교수의 철학강의시간과 데모하는 상황을 대비하면서 날카로운 현실풍자의 묘미를 소유하고있다。

> 우리 문화 내에 접증하고 있는 민중의식의 형성과 민주화의 지속적인 노력, 분단현실의 극복등 제반 현실에 대한 모색과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같이 문학 내에서의 노동자·학생 계층의 진전된 역사해석과 자기 입각점의 확인작업은 우리사회의 모순과 치열한 대립관계를 형성하지만 건강한 세계관을 보이면서 한층 확대·심화된 시대상황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깃발>의 경우)。그리고 끊임없는 반성과 상황을 교차시키면서 긴박한 당대현실과 감동적인 자기역할의 인식(<밤길>의 경우)은 신선한 또하나의 결실이자 80년대 후반에 들어 우리 문학이 거둔 역사적 체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학이 현실과 관련하여 시도하고자 하는 일련의 편향된 노력은 체험적 요소와 현장성의 강조로 인해 자칫하면 수기「르뽀르따쥬」의 차원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문학의 기법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형식을 시험하고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과 결부되면서 한층 설득력을 얻는다。

따라서 80년대 후반의 우리문학이 결론지워지는 또하나의 확인 작업인『우리 시대의 소설』발간은 우리 문학 내에 접증하고 있는 민중의식의 형성과 민주화의 지속적인 노력, 분단현실의 극복 등 제반 현실에 대한 모색과 성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아가 한국문학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당면 과제로의 본질궤도에 진입인 셈이다。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한번씩은 눈여겨보고 느껴야할 역사의 첨예한 단면들이 이 소설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유 임 하

<대학원석사과정·국문과>

평범하고 보편적인 독일인의 시각에서 역사를 기술, 그 역사에 휩쓸리는 등장인물의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가장 독일적인 영화」이며「20세기 최고의 걸작」이라고 갈채를 받았던<양철북>은 이미 79년 칸느영화제에서 작품상 수상, 80년도 오스카상에서 최우수 외국영화상을 수상하여 그 수준을 평가받고 있다。

원작자인「귄터·그라스」에 의해 쓰여져 1959년 책이 처음 출간되었고, 독일 전후문학의 최고봉으로 당시 불모상태에 있었던 독일 소설의 명예를 회복시킨 작품으로 거론되는 이 작품은「New German Cinema」의 대표적 감독이라 일컬어지는 볼커쉘렌도르프가 감독, 상업적인 성공과 더불어 New German Cinema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된다。

당시, 독일인과 폴란드인 유태인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단찌히」에서 출생한「오스카」는 그의 나이 세살되던 해, 어머니의 혼외정사등, 어른들의 세계에 회의를 느끼고는 스스로 성장을 거부, 세살짜리 어린애로 남을 것을 결심한다。

그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양철북은「성장의 멀출」을 나타내는데, 後에 그의 아버지 죽음과더불어 같이 양철북을 파묻음으로써 다시 성장을 하게되는 줄거리로 이어지게 된다。아홉든 오스카는 그의 양철북을 두드리며 그의 시각을 통해 2차대전 전후의 30년간의 역사적 흐름과 변천의 모습들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히틀러가 등장하던 2차대전당시의 모습에서부터 히틀러의 패망까지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아버지인 마제라트와 어머니 아그네스, 그리고 어머니의 정부 얀 브론스키의 모습과 그들의죽음, 그리고 오스카 개인의 혼란들을 사실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신선한 충격과 함께 독일의 내재적 상흔을 간직한 오스카의 신비한 눈빛이 기억에 아로새겨진다。

그는 그의 양철북을 빼앗으려는 상황 속에서는 소리를 질러 유리를 깨뜨리는등 불가사의하고 이상적인 성격으로 작품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분위기를 주도한다。

세월이 흐름에도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오스카」는, 그러나 그가 꿈꾸어 왔던 性의 거부는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일까。오스카는 집안일을 돌보는 마리아에 대해 사랑을 느끼고, 난장이 써커스단에서 사귄 여자친구 라구아나와도 사랑에 빠진다。그러나 그의 사랑은 모두 상실로 나타난다。마리아가 아버지의 애를 갖게되고 라구아나는 폭격으로 죽는다。

후에 마리아가 낳은 그의 의붓동생 쿠르츠를 안으며『이 애는 내 아이야』라고 독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왠지 씁쓸한 미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의 패망과 함께 아버지가 죽고 오스카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양철북을 파묻으며 다시 기적처럼 성장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오스카역에「데이빗 베네트」라는 소년을 기용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촬영당시 13세였으나 몸집은 6세어린이에 불과했던「데이빗 베네트」는 악마적인 분위기와 함께 세상을 직시하는 듯한 신비한 눈빛으로 가장 완벽하게 오스카역할을 소화하여『작가인 권터그라스도 실패한 오스카의 성격묘사를 감독인 쉘렌도르프가 데이빗 베네트를 통해 성공시켰다』는 평과 함께「데이빗의 얼굴이야말로 양철북의간판」이라는 영화비평가들의 격찬을 듣고 있다。

영화<양철북>은 그동안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미국영화에만 길들여져 있던 우리들의 시각에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다。소설을 영화화한 거개의 작품들에게서 받는 실망을 이 영화에서 만큼은 충실하게 보완되며 영화에서 사실주의의 가능성과 폭을 가늠케 해 주는 작품으로서 독일의 내재적 상흔을 간직한「오스카」의 신비한 눈빛이 기억에 깊이 아로새겨 진다。

김 소 영

<문과대 영문과>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이 교육현실은 누구의 탓인가?"

1.

『학교는 죽었다。』

우리들의 스승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그 속에서 약동해야 할 닮은 진실도 숨을 거둔지 오래였다。

학교는 전쟁터고 우리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감옥이고 교육은 이미 길들여진 완제품인형을 생산하는 작업에 불과하였다。그리고 선생님은 그저 억압자요, 감시자로서 존재할 뿐이었다。관료주의적 교육제도의 말단 행정관료 교사와 획일적 제도교육에 오염된 학생들만이 있을뿐이다。

그래도 이땅엔 아직 존경할만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땅의 교육현실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고 계실것을 믿는다。

2

스승의 날。

잃어버려서, 잃어버려서 을고싶은 날。

『뜨겁게 달려가 안겨야 될 가슴

통계숫자로 가득 차 있고

우러러 볼수록 우러러 블 게 없는

절망의 합창을

애국조회때 애국가 부르듯 을

해도 다시 불렀지』

진심으로 꽃한송이 달아들일 가슴이 없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할 스승님은 어디고 없다。스승의 날, 더욱 푸르른 5월 어드메쯤…。

3

선생님께。

선생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者만이 간다던 그「대학」에 무사히 들어오고 우리는 매년 오월을 맞이합니다。「목련꽃 그늘아래서」를 멋들어지게 부르시던 선생님의 고운 모습。5월15일이면 더더욱 뵙고 싶은 저희는, 그러나 부작정 아프기만 합니다。

그 시절,『대통령각하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문교부장관 지시사항 경제교육, 혼분식교육, 모의간첩신고 교육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조회시간 담임선생님의 명령대로 학급일지에도 충실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겼지』만은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훌륭한 인간」으로 향하던 길은 아니더군요。

보충교육, 입시특공대, 사지선다의 밀림속에서 오로지 立身만을 공부했던 저희들과 상부지시만을 기다리고 거기에 충실히 따라 立身하고자 하신 선생님은 슬프게도 파행적 이 시대의 똑같은 얼굴입니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이 교육현실은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4.

학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엔 가슴이 살아숨쉬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허름한 무허가건물 어느 막사에서 60촉백열등 아래「야학」을 불태울 선생님들과 민중교육운동에 스스로를 불사를 선생님들이 계시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매년 울적하던 스승의 날이 다시 찾아오면 꽃한송이, 마음한자락, 달려가서 선생님의넓은 가슴에 안길 그날이 찾아오리라。

5.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 성 진

<문과대 철학과>

메아리

▲언제부터 5월을 분노의 달로 불러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이 5월에는 5·16군사「쿠데타」가 있었으며, 절대권력자가 부하의 총탄에 꺼꾸러진 후「12·12사태」로 군의 권력을 장악한 일부 정치군인들이 권력을 손아귀에 넣기위해 을모를 꾸민끝에 5·17조치로 유발시킨「5·18광주민중항쟁」이 역시 이달의 감정을 뜨겁게 한다。▲그 처절했던 광주시민의 처참한 함거가 있은지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지났다。그동안 금기시되었던 광주항쟁에대한 논의가 지난 봄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와지면서 이에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진 듯하다。

「사태」에서「의거」로의 명칭전환이 이를 뒷받침한다。물론 이는「걸치레」와「속일수」에 불과하지만 또한 올해는 광주의 민주영령들이 잠들어 있는「망월동묘역」을 찾는 인파가 人山人海를 이룬다고 한다。「성지순례」의 형식으로 말이다。다시 5월을 맞으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가 있다。이는 무엇보다도 그당시의 사실 그대로의 진상규명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피해상황의 정도를 아직까지도 정확히 모르며, 또한 세워 일약 제1야당으로 부상한 평민당이 호남지역을 독식했던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한 예에 불과하다。허나 요즈음 떠들고 있는「국정조사권」발동으로 인한 해결하자는 주장은 처음부터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비록 국회의 권한이 증대되고 국회의 모습이 과거와는 달리 與小野大의 양상을 띤다해도 아직까지 제1당은 집권여당이며 더구나 그들의 핵심세력이 관련자들인 상태에서 무모하게 해결하려 들다가는 문제의 핵심을 도외시한 채 진실만을 더욱 왜곡시키는 음모에「들러리」를 서는 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광주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80년 5월이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것이며,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해결을 한다고 하면 진상의 정확한 규명과 아울러 관련자들을 스스로 죄가를 책임지는 일일 것이다。 <煥>

분노의 5월

무고한 백성을 학살한 장본인이 고위권력자로 또는 저명인사로 행사하고 있으며, 이들 범법자들을 배후에서 조종내지는 묵인한 미국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곧이 곧대로 맹신하는 우매한 국민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지난「4·26총선」에서 광주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

"55분만 있읍니다"

쌍용의 김과장에게는
55분만 있읍니다.
그는 고객과의 약속을
언제나 5분 먼저
지키기 때문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우리네 사회생활———
언제부턴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읍니다.

조그마한 틈새로부터
커다란 둑이 무너지듯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서부터
불신의 벽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있는 기업을 가꾸어 가는
쌍용의 시계에는
언제나 55분만 있읍니다.

SSANG YONG 쌍용